

“서로 사랑하여라”

- 사귄 · 섬김 · 나눔 -

대희년 맞이 평신도대회



1. 사귄과 섬김의 마당: 평신도대회

일시: 1999. 10. 21. (09:00 ~ 17:00)

장소: 올림픽공원 제3체육관(역도경기장)

2. 나눔의 한마당: 도 · 농 한마당 잔치

일시: 1999. 10. 24. (10:00 ~ 20:00)

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광장



한국천주교 평신도시도직협의회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 되게 하소서
받기보다 기쁘게 주며
사랑 받기보다 사랑하는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반복)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사랑 심는 평화의 도구가--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용서하는 평화의 도구가---

CATHOLIC LAY APOSTOLATE COUNCIL OF KOREA
THE FIRST LAITY CONGRESS

“서로 사랑하여라”

--사귄 · 섬김 · 나눔--

대희년 맞이

평 신 도 대 회

1. 사귄과 섬김의 마당: 평신도대회

일 시: 1999. 10. 21. 09:00-17:00

장 소: 올림픽공원 제3경기장(역도)

2. 나눔의 한마당: 도농 한마당잔치

일 시: 1999. 10. 24. 10:~20:00

장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광장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평신도 대회를 계기로 한 새 다짐과 봉헌

은총의 대회년을 합당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저는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면서 '나부터 새롭게' 태어나고 대화와 생명 존중으로 '참된 가정'을 이룩하겠습니다. 용서와 화해·평화의 일꾼으로서 '좋은 이웃'이 되어주며 그리스도교 일치와 타종교 존중, 민족 화해에 앞장서고 자연 사랑·환경 되살리기 등에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천주교회의 '새날 새 삶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며 다음과 같은 실천 사항을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1. 사랑의 교회 공동체를 이룩하겠습니다.

- (1) 쉬는 신자를 찾아보고 교회로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 (2) 교회와 모든 이의 일치를 위해 살겠습니다.
- (3) 미사 후 형제 자매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2. 평화의 가정을 이룩하겠습니다.

- (1)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즐겨 대화하겠습니다.
- (2)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 (3) 가족간에 서로 장점을 살려 칭찬하겠습니다.

3. 나라 사랑과 민족 화해에 힘을 모으겠습니다.

- (1) 북한동포 돕는 일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 (2) 민족 화해를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 (3) 본당과 교구의 경계를 넘어 함께 나누는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하겠습니다.

4. 내가 먼저 참된 이웃이 되어주겠습니다.

- (1) 실직자 가정을 찾아보고 힘닿는 대로 도와주겠습니다.
- (2) 내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 (3) 다른 사람을 칭찬하겠습니다.

5. 자연 사랑을 통해 하느님을 사랑하겠습니다.

- (1) 쓰레기 분리 수거와 재활용에 앞장서겠습니다.
- (2) 합성세제 적게 쓰고, 물과 전기를 아껴 쓰겠습니다.
- (3) 공해업소 추방하고 자연 가꾸는 일에도 앞장서겠습니다.

6. 증거자의 삶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겠습니다.

- (1) 남보다 한가지 덜 갖겠습니다.
- (2) 신앙선조의 시성·시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 (3) 순교성지를 자주 순례하며 매사에 하느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사랑하겠습니다.

7. 섬기고 나눔으로써 사랑을 완성하겠습니다.

- (1) 위·아랫사람을 모두 존중하겠습니다.
- (2) 불목한 형제에게 먼저 용서를 청하겠습니다.
- (3) 선교에 앞장서겠습니다.

8. 성인들의 통공 속에 우리의 '거룩한 여행'을 도와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 (1) 성인전을 자주 읽고 그분들의 삶을 따라 살겠습니다.
- (2) 병자를 찾아 돌보겠습니다.
- (3) 먼저 가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9. 매일의 노력을 그분께 바쳐드리며 대회년을 맞이하겠습니다.

- (1) 저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몸과 마음을 새로이 하겠습니다.
- (2)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음성에 귀기울이겠습니다.
- (3) 이웃의 부채를 덜어주겠습니다.

대회년 맞이 평신도 대회

평신도 선언문

1. 한국 천주교회는 세계교회사에서 유일하게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창립되었다. 순교자들의 피와 땀은 오늘 한국 교회의 밑거름이 됐다. 우리는 이러한 전통을 이어 2000년 대회년을 앞두고 한국 천주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평신도 대회를 치르고자 한다.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해 신앙 선조들의 순교 정신을 본받고, 회년의 정신으로 거듭나, 사귄과 섬김과 나눔이 충만히 실현되는 복음적 공동체를 이 땅에 건설하고자 한다.

2. 우리는 먼저 하느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교회 공동체와 민족 앞에서 고백한다. 우리는 자신이 '교회'라는 주인의식 없이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음을 고백한다. 우리의 본분이 현세질서를 성화하는 것임을 망각하고, 교회출석과 성사생활이 신앙생활의 모두인 것처럼 살았음을 고백한다. 집단 이기주의와 자기 중심주의에 사로잡혀 불의와 타협하고 진리를 외면하며 살았음을 고백한다.

3. 우리는 대회년의 정신으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 천년대 새 복음화의 사도로 나설 것을 선언하면서 이 땅의 모든 평신도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다지고자 한다.

— 우리는 사귄과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거듭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여라'는 사랑의 새 계명을 각자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 나갈 것이다.

— 우리는 '내가 바로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현세질서의 복음화와 교회의 내적 쇄신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 저마다의 다양한 재능과 전문성을 통해 하느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데 협력할 것이다.

— 우리는 교회 생활에서 신자된 의무와 도리를 다할 것이다. 또 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보장받도록 노력할 것이다.

— 우리는, 갈수록 확산되는 죽음의 문화에 맞서 생명의 문화를 가꾸기 위해 '가정의 성화'에 힘쓴다. '집안 교회'인 가정이 복음의 빛으로 충만하도록 가정 성화와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관심과 열정을 쏟을 것이다.

— 우리는 직장과 지역 사회,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개인 사도직과 조직적인 사도직을 적극 수행할 것이다. 특히 교회의 모든 평신도 운동과 단체들간의 연대와 협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민족의 화해와 일치는 새 천년대에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최대의 과제이다. 우리는 민족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교적인 사랑과 용서, 일치의 정신으로 민족의 화해와 일치에 앞장설 것이다.

4. 우리는 성직자들에게 호소한다. 교회의 쇠퇴는 성직자의 쇠퇴에서 시작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마태 20,28)고 말씀하셨고, 또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요한 15,15)고 하셨다.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성직자들은 섬김을 받기보다 섬김으로써 참된 목자로 거듭 나주기를 희망한다.

5. 수도자들에게도 호소한다. 수도자들은 본연의 신원과 창립자의 카리스마로 돌아가 교회의 영적 활력소가 되어 줄 것을 희망한다. 수도자들은 봉헌생활의 기본가치인 가난·정결·순명·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희망한다.

6. 끝으로 우리는 선의의 모든 이들에게 호소한다.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고, 사랑과 자유가 충만한 세상은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우리는 온 인류의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됐음을 선포하면서, 진리와 자유를 추구하는 선의의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참 희망 안으로 초대한다. 아울러 하느님 나라 건설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한다.

1999년 10월 21일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차 례

- ◇ 평신도 대회를 계기로 한 새 다짐과 봉헌 / 2
- ◇ 평신도 대회 선언문(요약) / 4
- ◇ 평신도 대회 일정표 / 8

I. 행사 개요 / 9

- 1. 취지와 방향 / 9
- 2. 대회 주제 / 9

II. 경과 / 11

- 1. 사회교리 실천 운동 / 11
- 2. 목주기도 1억단 봉헌 운동 / 11
- 3. 학술 행사 및 토론 / 12
- 4. 경축 사진전 / 12

III. 사림과 섬김의 마당: 평신도 대회 / 13

- 1. 행사 프로그램(오전) / 13
 - 1) 로사리오 기도 / 13
 - 2) 선교, 신앙 체험담 / 13
 - 3) 개회식 / 13
 - ① 개막 공연: '비나리' / 13
 - ② 개회기도 / 13
 - ③ 참가현황 발표 / 13
 - ④ 대회 선포 및 개회 인사 / 13
 - ⑤ 환영 인사 / 13
 - ⑥ 교황 메시지 / 13
 - 4) "사림과 섬김과 나눔"의 시간 / 13
 - ① 이 땅의 평신도 / 13
 - ② 쟈 성가 / 13
 - ③ 레지오 마리아 / 13
 - ④ 꾸르실료 / 13

- ⑤ 성령쇄신 봉사회 / 13
- ⑥ MBW / 13
- ⑦ 매리지 엔카운터(ME) /13
- ⑧ 포콜라레 운동/ 13
- 2. 미사 전 열린 마당 / 15
- 3. 공동 참회 예절 / 14
- 4. 장엄 미사 / 15
 - 성체 거동 / 24
 - 성체 강복 / 28
- IV. 나눔의 마당: 도·농 한마당 잔치(10월 24일) / 29
 - 1. 행사 개요 / 29
 - 2. 행사 내용 / 29
- V. 가톨릭 대상 시상식 / 30
- VI. 행사 기구 / 34

- ◇ 참가 전국 단체 소개 / 46
- ◇ 좌석 배치도 / 65

대회년맞이

평신도 대회

발행인: 류 덕 희

발행소: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우100-022 서울 중구 명동 2가 1

02-777-2013, 771-7600, f-778-7427

발행일: 1999년 10월 15일

◇대희년맞이 평신도 대회 일정표

주제 · 내용		시간	담당	준비	비고
섬 김	점검	07:00 -	본부장	전부서	경축사진전시회-사진가
	안내(사진전시, 행사)		사회자	동원, 시설	협회 회원전-현관 입구.
	로사리오 기도	09:10	레지오	안내부	선물-타이스팅, 전부서
나 눔	신앙 체험	09:10 -	김선옥		복음화 사무국
	선교 체험	09:50	문재현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사 쿱	개막 공연·성가	09:50 - 10:17	문화연구원		
	개회기도		행사 본부장		
	참가 현황 발표		사무 총장		
	대회선포 · 개회인사		평협 회장		
	성가		합창단		
	환영 인사		김옥균 주교		
	교황성하 메시지		교황 대사		
나 눔 · 사 쿱	이 땅의 평신도	10:17 - 12:10	대표	6 명	극단 「산맥」
	젠 성가		회원들	10 명	포콜라레 젠 합창단
	레지오 마리아 영성		단장	증언+찬극 22명	성모님과 함께
	꾸르실료 영성		주간	풍물놀이 20명	크리스찬 생활
	성령쇄신봉사회영성		회장	28명	찬미와 율동
	MBW 영성		회장	소개 1명	공동체 영성
	ME 영성		회장	30명	부부 무언의 대화
	포콜라레 영성		대표	증언5+20명	일치의 영성
나 눔	대상 시상식	12:10 -	김옥균주교	사무국	순교자현양회합창단 경과보고: 사무총장
		12:30	평협회장		
섬 김	열린 마당	13:20 -	대표	시설부	극단 '산맥'
		14:25	지도신부	기획	요한복음 성가단
섬 김	장엄 미사	14:30 -	정 대주교	전례부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성체 거동		회장	"	"
	성체 강복	6:45	회장	"	"
	폐회 선언	16:45 -	평협부회장	행사부	전부서 뒷정리

I. 행사개요

1. 취지와 방향

1) 취지

- * 회년의 정신으로 평신도들이 쇄신되어 2000년 대회년을 뜻깊게 맞이하고 나아가 2000년대 복음화를 위한 결의를 다짐하는 모임.
- * 교회 내 각 운동과 단체들이 교황님의 지향대로 서로를 더 잘 알고 친교를 돈독히 하는 가운데 다양성 안의 일치를 이루며 모든 이가 교회의 선교사명을 확실히 깨달아 복음화의 역군이 될 것을 기약하는 모임.

2) 방향

- * 1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연중 1회 '평신도대회'를 갖도록 한다.(2000년 대회년에는 10월 26일 목요일에 '평신도의 대회년'이 한국교회 대회년 캘린더에 올라 있음)
- * 전국 각 교구평협과 단체들이 준비과정에서부터 행사에 이르기까지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형식적·과시적 행사를 지양한다.
- * 영성과 신심강화에 바탕을 둔 한국 평신도 전체의 행사가 되도록 한다.
- * 행사 자체보다도 준비 과정과 행사 이후의 지속성이 강조되는 행사를 지향한다.
- * 신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의지에 기초를 둔 행사를 지향한다.

2. 대회 주제: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17)

---사귐·섬김·나눔---

한국교회 평신도 모두가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사귐과 섬김과 나눔으로써 한

형제 되어 한마음 한 몸의 그리스도 공동체를 이룩하기 위해 ‘사귄 · 섬김 · 나눔’이라는 부제를 정하고,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을 수 있는 복음서의 한 대목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 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요한 15, 16-17)라고 하신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5, 17)를 주제로 삼았다.

이 말씀은 수난 전날 저녁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고 하신 부분에서 그 뜻이 잘 나타난 구절이기도 하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평신도의 사명이요, 소명이다.(교회헌장 33항, 교회법 제225조, 평신도교령 제 7항 참조)

II. 경과.

1. 사회 교리 실천 운동

* 월별 실천 덕목을 평화신문에 게재, 구체적으로 살도록 한다.

4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룩합시다

5월 평화의 가정을 이룩합시다

6월 나라 사랑과 민족화해에 힘을 모읍시다

7월 내가 먼저 참된 이웃이 되어 줍시다

8월 자연 사랑 하느님 사랑

9월 증거자의 삶으로 하느님을 사랑합시다

10월 섬기고 사귀며 나눔으로써 사랑을 완성합시다

11월 성인들의 통공-거룩한 여행을 계속합시다

12월 매일의 노력을 그분께 바쳐드리며 대회년을 맞이합시다

2. 목주기도 1억단 봉헌운동

*지향: 오늘의 고통을 주님의 수난에 합쳐드리며, 이 땅의 교회와 겨레의 새 출발을 성모님께 봉헌하는 뜻으로 다음 다섯 가지 구체적인 지향을 두고 기도한다.

1. 대회년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하여

2. 실직자와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위하여

3. 북한 동포를 위하여

4. 모든 이의 회개와 화해를 위하여

5. 도덕성 회복과 사회교리 실천을 위하여

* 목주기도 최종봉헌은 대회년이 시작되는 1999년 12월 24일에 하고, 평신도 대회가 열리는 10월 21일 봉헌 때 중간 집계를 발표하면서 이를 제단에 봉헌한다.

3. 학술행사 및 토론회

1) 민족 화해 토론회 (7월 10일 14:00-19:00, 가톨릭회관 7층)

- 제1주제: 희년은 동족을 자유의 몸이 되게 - 최창무 주교, 이기현 신부
- 제2주제: 동족을 희생하며 얻는 성공은 최대의 실패 - 유호열 교수
- 제3주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되게 - 명길량 선생
- 제4주제: 동족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지라도 - 조 광 교수
- 제5주제: 하나의 새 민족으로 만들어 평화를 - 이광규 교수

2) 선교 심포지움(8월 21일 14:00-18:00, 가톨릭회관 7층)

- 제1주제: 한국 천주교 선교 운동의 현실과 전망 - 박일영교수
- 제2주제: 21 세기 선교의 방향
 - 제1발표: 본당영역 “한국천주교회의 문제점과 극복방법”- 하인호 선생
 - 제2발표: 정보사회 “21세기 정보 사회에서의 선교”- 최성우 신부
 - 제3발표: 평신도선교사 “선교사의 역할, 위상 나아갈 방향”- 김호철 선생
 - 제4발표: 해외선교 “21세기 해외 선교”- 윤기호 신부
 - 제5발표: 농촌.환경 “교회의 환경 운동-생태적 공동체로”- 이인석 박사
 - 제6발표: 통일 “통일 선교”- 윤갑구 선생

3) 정의 평화 대토론회 (9월 18일 14:00- 17:30, 가톨릭회관 7층)

- 제1주제: 긍정적 사회 운동의 필요성과 그 방안 - 이동진 대사
- 제2주제: 가정 내의 정의와 평화 - 문용린 교수
- 제3주제: 교회 내 정의 평화의 현주소 - 김평일 강남치과원장
- 제4주제: 정의 평화와 복음 - 홍승권 신부

4) 가톨릭 청소년 사목의 과제와 전망에 관한 심포지움

(10월 9일 13:00-17:30 ,서강대학교 이나시오 관 소강당

- 제1주제: 가톨릭 교회와 청소년 - 박재황 교수
- 제2주제:가톨릭 교회의 청소년 복음화 - 한명수 선생
- 제3주제: 가톨릭 교리 교육의 현장 진단과 대안 모색- 이충근, 염병섭 선생
- 종합토론: 사회- 황규남 선생

4. 경축 사진전(한국 가톨릭 사진가협회 회원 작품 50 점 전시)

Ⅲ. 사کم과 섬김의 마당: 평신도 대회

1. 행사 프로그램

1) 대회년 맞이 평신도 대회를 위한 로사리오 기도

2) 선교, 신앙 체험담:

- ① 서울대교구 2000년대복음화위원회: '주님의 도구로 써 주소서'
-김선옥 켄마(서울대교구)
- ②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문재현 다테오(전주교구)

3) 개회식 (09:50-10:03)

- ① 개막 공연: 지난 1000년대를 씻고 2000년대를 터뜨리는 '비나리' (문화연구회)
- ② 개회 기도: 행사본부장
- ③ 참가 현황 발표: 사무총장 (교구 및 단체)
- ④ 대회 선포 및 개회 인사 내빈 소개: 류덕희 전국평협 회장
- ⑤ 환영 인사: 한국 주교회의 평신도위원회 위원장 김옥균 주교
- ⑥ 교황성하 메시지 : 교황대사 모란디니 대주교

4) 사کم과 섬김과 나눔의 시간

* '이 땅의 평신도' (한국 평신도의 과거, 현재, 미래를 표상) 공연에 이어 각 운동과 단체들의 발표 시간을 가진다.

- 켄 성가 : 포콜라레 청소년들의 아름다운 노래 '또 다른 인류'
- 레지오 마리아 : '성모님과 함께' (주제) 활동 증언과 소인극(20분)
- 꾸르실료 : 이광호 주간이 이 '운동'을 소개
- 성령쇄신봉사회 : '찬미와 울동'
- MBW : '공동체 영성'을 서울회장이 발표
- 매리지 엔카운터(ME) : 15 쌍의 부부가 '무언의 대화'를 공연
- 포콜라레 : 중·고·대학생·젊은이와 어른 등 계층별 복음 실천 경험담. 포콜라레 역사와 영성을 소개

주 예수님, 용서하지 못하는 악에서 벗어나 모든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제 마음의 어두운 곳을 밝혀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1) 고백 기도
- 2) 사죄경
- 3) 평화를 위한 화해 예절

4. 장엄 미사

- *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대주교(한국천주교 주교 회의 의장) 주례, 모란디니 교황대사, 주교·사제단 집전
- * 말씀의전례 때(강론 후) '평신도 선언문(요약)'을 류덕희 평협 회장이 낭독
- * 평신도대회 의미·상징을 담은 **예물 봉헌**(각 교구·전국 단위 단체 사전 접수) 후 묵주기도 1억단, 도농 결연, 헌금 봉헌으로 이어진다.

<시작예식>

입당성가

329 미사 시작

1. 기쁨이 넘쳐 떨 때 뉘와 함께 나누리 / 슬픔이 가득할 때 뉘게 하소연하리.
영광의 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오니 / 서러운 눈물 씻고 주님께 나아가리.
2. 당신이 아니면 그 누가 빛을 주리 / 인생은 어둠속에 길 잃고 방황하리
희망의 주 내삶의 길 인도하시오니 / 나 언제나 주 안에 평화를 누리리
3. 부당하온 이 영혼 주 앞에 어찌 가리 / 주께서 살피시면 결백함 있을런가
사랑의 주 우리의 뉘우침 굽어보사 / 불쌍히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39 하나되게 하소서

1. 성부여 이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진리 위해 몸바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성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심과 같이

- 나도 사도들을 세상에 파견하나이다.
2. 성부여 내게 맡기신 이 사람을 지키시고
나 당신과 하나이듯 이 사람들도 모두가
하나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모두 진리이며 생명의 말씀이옵니다.
3. 성부여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증거하며
당신 나를 사랑하고 내 안에 항상 계시듯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사랑하오리니
모두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 아멘

†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인 사

◎ 또한 시제와 함께. 참 회

†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저의 큰 탓이 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하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 아멘

자 비 송

대영광송

† 하늘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 하느님의 어린 양,
-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 ◎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본 기도

† 기도합시다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을 뽑으시어 기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주 하느님 아버지, 신앙 선조들의 뜨거운 순교 정신을 본받아 구세 주 탄생 2000년 대회년을 합당하게 맞이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자녀들이 말과 행동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선포하고 증거함으로써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느님을 참사랑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소서.

또한 대회년을 앞두고 모든 평신도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기쁨을 찾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 아멘

<말씀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 (2, 42-47)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서로 도와 주며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5. 우리는 가난하고	불쌍하오니
주여 어서 오시어	도우소서.
우리를 구하시는	당신이니
내 주 하느님 더디지	마시옵소서.

제 2독서

로마서 (8,31b-39)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신 하느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이든지 다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느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그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단죄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우리의 처지는 “우리는 종일토록 당신을 위하여 죽어갑니다. 도살당한 양처럼 천 대를 받습니다.”라는 성서의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의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365 알렐루야

알렐루야 알렐루야 당신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나이다.
주여 말씀하소서 당신 종이 듣나이다. 알렐루야

복 음 (요한 15 : 7-17)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또 내 말을 간직해 둔다면 무슨 소원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왔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있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 주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 ◎ 주님의 말씀입니다.
-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강 료〉 (강론 후 잠시 침묵 가운데 묵상한다.)

평신도 선언문 (요약문 낭독--이 책 4쪽 참조)

신앙고백

† 전능하신 천주 성부,

◎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벨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

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보편 지향 기도

† 형제 자매 여러분, 평신도대회를 지내는 오늘, 거룩한 교회를 도와주시고 세상 모든 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도록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1.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가톨릭 신앙을 기묘한 방법으로 들어오게 하신 아버지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청하오니,

저희 모두 신앙선조들의 순교정신을 본받고, 희년의 정신으로 거듭나, 사قم과 섬김과 나눔이 충만하게 실현되는 새 복음화의 공동체를 이룩하도록 이끌어 주소서.

◎거룩한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세계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생명이신 아버지 하느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종교와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과 전쟁을 일삼고, 가진 것을 나누지 않아 굶주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간절히 청하오니, 지구촌 인류 모두가 사랑 자체이신 당신을 본받아 귀중한 생명들이 헛되게 죽어 가는 비극을 멈추게 하시어 아버지의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거룩한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3.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직 한 분이신 아버지 하느님, 반세기가 넘도록 남북으로 갈라져 고통 당하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을 굽어살피시어 하루 속히 민족의 화해와 통일이 이루어져 삼천리 방방곡곡에 아버지의 영광이 흘러 넘치게 하소서.

◎거룩한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4. 평신도 사도직의 활성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거룩한 여정의 목표이신 아버지 하느님, 새 천년대 새 복음화의 사도로 나설 것을 선언한 저희 평신도들이 현세질서의 복음화와 교회쇄신에 헌신하며 생명의 문화를 가꾸고 교회운동과 단체들의 연대와 협력에도 힘씀으로써 아버지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거룩한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물 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자비로이 굽어보시고, 2000년 대회년을 합당하게 준비하는 저희 모두가 주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구원의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감 사 송

-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와 함께
- † 마음을 드높이
- 주님께 올립니다.
- †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 선조들을 복음의 빛으로 불러 주시어 갖가지 빛나는 덕행을 그들에게 갖추어 주시고, 죽기까지 신앙을 지키게 하시어, 마침내 성자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셨나이다. 그 순교의 정신을 이어 받은 저희들은 오늘 대회년 맞이 평신도 대회를 통하여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즐거이 받아 주실 산 제물로 봉헌하게 됨을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럽게 여기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인들과 함께 아버지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영성체 예식

평화 예식

영성체

영성체송

◎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증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안다고 증언하리라. (마태 10, 32)

영성체후 기도

† 하느님 아버지,

대회년 맞이 평신도 대회를 지내며 성체로 힘을 얻고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봉사하는 사랑의 사도로 나섬으로써 이 땅에 참다운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 ... 비나이다. ◎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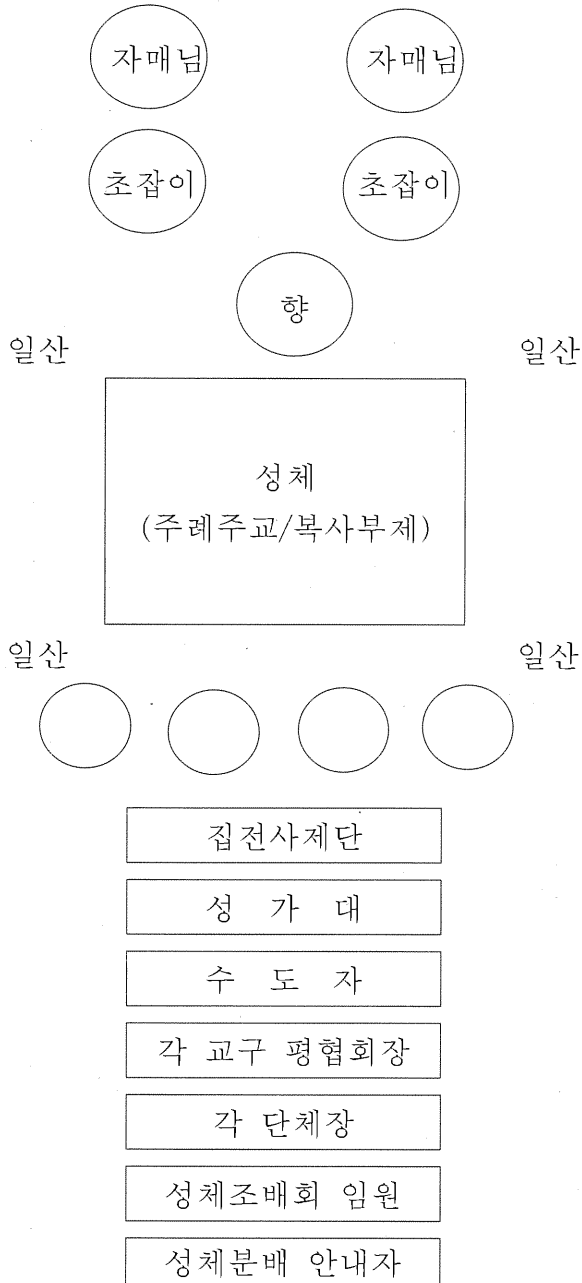
공지사항

- * 성체 거동 행렬순서: 공동집전사제, 수도자, 합창단, 성체분배자,교구평협회장, 단체장, 성체조배회 간부(200여 명)
- * 2층의 교우들은 조용히 체육관 밖으로 나가서 체육관 둘레에 도열하십시오.
- * 1층의 교우들은 성체거동 행렬 동안 묵상과 성가로 기도합니다.

○ 성체 거동

2층에 있던 서울대교구 참가자들이 남문으로 이동하여 동·서쪽으로 2열로 경기장 밖을 둘러선다.→ 제대에서 출발한 성체(무대 오른쪽으로 출발, 무대 주위를 한 바퀴 돌아서)는 무대 왼쪽(동쪽 방향) 출구→ 제 3체육관 정문 앞→ 서쪽 방면→ 경기장을 돌아 무대 서쪽 입구

성체 거동 행렬 순서



*성체행렬의 의의 :

가톨릭 교회의 오랜 전통을 보면 장엄하고 간절한 교회 공동체의 기도를 외적으로 표현할 때 신자들은 마을의 큰길을 걸으면서 행렬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행렬을 통해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렸고, 성인들에게 전구했으며, 속죄와,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렬은 하느님께 온 마음으로 흠숭의 예를 올리기 위한 행위인 동시에 종교적인 열성을 드높이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뜻을 받들어 성체 성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이 땅의 새로운 축복을 기원하며, 성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로 모여, 주님을 흠숭하고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기를 위해 행렬하고자 합니다. 회년의 정신으로 평신도의 쇄신을 위해 2000년 복음화를 위한 결의를 다짐하는 뜻으로 민족과 여러 종교와, 각 교구와 본당과 각 신심 단체와 가정과 개인의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소망으로 초대교회의 신자들처럼 서로 사랑과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들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이루어 내기 위해 성체를 모시고 앞서 가시는 교구장님의 뒤를 따라 행렬하겠습니다.

행렬순서는 먼저 성체를 모시고 앞서 가시는 교구장님의 뒤를 따라 사제, 성가대, 수도자, 각 교구 평협회장, 각 단체장, 성체조배회 임원, 성체분배 안내자 순서가 되겠습니다.

행렬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앉으신 자리에서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성체현시 성가

503 생명의 양식

1.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네 / 아 감탄하올 내 주의 신비를
오 감사로워라 사랑의 성사 / 주여, 주여 감사하나이다
주여, 주여 감사하나이다. / 삼위일체신주 네게 구하나니
너를 경애하는 우리를 돌보사 / 우리의 믿음이 너 계시옵는
광명으로 인도하옵소서. / 광명에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2. 천사의 양식이 우리 양식되어 / 가난한 우리를 충만케 하시네
가련한 우리를 불쌍히 보사 / 주여, 주여 네 성체 주소서
주여, 주여 충만케 하소서 / 주님이 해변서 떡을 떼심같이
하늘의 양식을 내리어 주소서 / 가련한 우리를 불쌍히 보사
주여, 주여 네 성체주소서 / 주여, 주여 충만케 하옵소서.

166 생명의 양식

1. 생명의 양식인 나에게로 오너라/ 나 믿는 사람들은 목마르지 않으며
내 안에 살게되리
(후렴) 나 그를 사랑하여 나 그를 살게 하리/ 나 그를 영원히 영원히 살게하리
2. 이 빵은 나의 몸 너희에게 주노라/ 내 몸 먹는 자들은 죽음 당하지 않고
영원 생명 얻으리
3. 내 살을 먹는 자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살게되리 끝없는 행복 속에
평화를 누리리라.
4.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로다/ 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오더라도
영원히 살리라.

178 성체 앞에

1. 형제들아 성체 앞에 모여와서 / 정성되이 주 예수를 찬미하세
우리예수 사랑으로 임하시니 / 형제들아 진심으로 경배하세
2. 밀떡 속에 당신 온몸 감추시고/ 찬란하신 그 영광을 숨기시네
우리 주께 진심으로 바라옵고 / 주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하세
3. 우리 눈엔 밀떡만이 보여지나 / 예수그리스도 실로 거기 계시도다
우리 믿음 제아무리 깊다해도/ 위대하온 이 신비를 어이 알리
4. 우리들은 미약하온 인간이나 / 주님 말씀 영원토록 따라가세
예수 친히 확실하게 말했으니 / 그 말씀을 굳게 믿어 살아가세

506 사랑으로 오신 주여

1. 사랑으로 오신 주여 인류 구원하신 주/ 성체 안에 계신 주여 찬미 드리나이다.
2. 사랑으로 오신 주여 십자가에 달린 주 / 무한한 사랑주신 주 감사드리나이다.

- 3. 사랑으로 오신 주여 우리 양식되신 주/ 주의 몸 우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 4. 사랑으로 오신 주여 우리 함께 계신 주/ 가난한 영혼 돌보사 위로하여주소서.

176 믿음 소망 사랑

- 1. 주여 오소서 우리에게 오소서/ 미약한 우리사랑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구원의 주 예수여/ 기쁨 평화 우리 주 예수
영원 찬미 받으옵소서.
- 2. 주여 오소서 우리에게 오소서/ 부족한 우리믿음 드리오니
들어주소서 구원의 주 예수여/ 진리 생명 우리 주 예수
영원 찬미 받으옵소서
- 3. 주여 오소서 우리에게 오소서/ 간절한 우리소망 드리오니
이뤄주소서 구원의주 예수여/ 정의 자유 우리 주 예수
영원 찬미 받으옵소서

○ 성체 강복

다시 실내 제대 앞으로 돌아온 사제단에 의해 성체 강복으로 이날 행사가 대
단원의 막을 내린다.

파견성가

83 주 찬미하라.

주 찬미하라 모든 민족들아 / 주 찬미하라 모든 백성아
 영원하신 사랑 우리 위에 넘치고 / 자비로운 마음 끝없네
 주님의 진리 영원하시다 / 주님의 진리 영원하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주 찬미하라 모든 민족들아 / 주 찬미하라 모든 백성아

IV. 나눔의 마당: 도·농 한마당 잔치

1. 개요

일 시: 1999년 10월 24일(일) 오전 9시~오후 7시

장 소: 서초구청 마당

주 최: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주 관: 서울평신도사도직협의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전국본부,
우리농촌살리기 운동 서울대교구본부

후 원: 가톨릭농민회, 가톨릭신문, 가톨릭실업인회, 가톨릭여성연합회,
서초구청, 평화방송·평화신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 행사 내용

제1부 추수 감사 미사

시 간 : 오전 10시~11시

장 소 : 서초구청 앞마당

집 전 : 강우일 주교, 모란디니 대주교,

박기주, 정월기, 김홍진, 이용희, 최민석 신부 외

- 농촌 체험 감상문 시상

- 미사 후 주교님께서 나눔잔치, 장터 순회

제2부 나눔 잔치, 장터

시 간 : 오전 11시~오후 7시, 장 소 : 서초구청 앞마당

- 개장식은 기념미사 전 주교님을 모시고 진행

- 판매마당 : 우리농 전국본부 생산자위원회를 통해 각 교구별 우수농산물
소개, 판매(농산물, 가공품, 환경 상품 등)

- 잔치마당 : 10개 본당-우리농산물로 만든 우리 먹거리
(국밥, 국수, 빈대떡, 막걸리, 떡, 떡볶이, 족발, 순대 등등)

- 문화마당 : '기쁨과 희망' 특별공연, PBC 공개방송 '한낮의 가요선물',
품물 경연대회 등

- 놀이마당 : 민속놀이(널뛰기, 투호놀이, 제기차기, 줄넘기, 윷놀이 등)

V. 가톨릭 대상 시상

1982년이래 해마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가 사랑·정의·문화 부문에 걸쳐 그리스도처럼 생활한 이들을 표창해 온 시상 제도이다. 후보자 한 사람도 뺄 수 없을 정도로 하느님 안에서 큰 선행을 나누신 분들이다. 금년에는 평신도 대회에서 시상하여 더욱 널리 복음을 선포하게 될 계기가 될 것이다.

제 16 회 (1999년) 가톨릭 대상 수상자 결정

◆ 사랑 부문

- 성 명 : 박경수(朴景守)씨 (남.68세)
- 주 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1동 204-15
- 전 화 : (051)514-12058

- 성 명 : KBS 사랑의 리퀘스트
- 주 소 :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방송공사
- 전 화 : (02)781-1114

◆ 정의 부문

- 성 명 : 인천 가톨릭환경연대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유동 2-5 보배빌딩 3층
- 전 화 : (032)887-0390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류덕희·지도신부 정월기)는 제16회(1999년) 가톨릭대상 수상자로 사랑 부문 2명, 정의 부문 1명을 선정, 시상기로 결정하였다. 가톨릭대상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남다른 사랑의 실천과 봉사와 희생에 앞장서며 정의 구현과 문화의 창달에 현저한 기여를 한 숨은 공로자(작은 그리스도)를 찾아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도록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1982년에 제정, 해마다 시상해 오고 있다.

금년도에는 사랑부문 대상에 박경수씨와 KBS 토요일 오후 7시 30분에 방송되는 사랑의 리퀘스트 팀을, 정의 부문 대상에 인천교구 가톨릭환경연대팀을 각각 선정, 시상기로 했으며, 문화부문 대상은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각 부문별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3백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제16회 가톨릭 대상 심사는 이관진 위원장(한국평협 상임고문, 직전 한국평협 회장)과 심사위원으로는 박정훈(한국평협 고문, 전 평협회장)을 비롯한 류덕희 회장(한국평협 회장)과 한국평협 회

장단과 관계 임원을 위원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엄정한 심사를 하여 결정하였다.

(사랑 부문)

박 경 수(세례자 요한) 씨



박경수씨는 열심한 가톨릭 신자 집안 출신으로 일생을 불타는 신심과 불우이웃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열정으로 살고 있는 분이다. 특히 최근 6~7년간 교회의 입지가 가장 열악한 중국 교회에 도움을 주는데 마지막 삶을 불태우며 평신도 선교사의 사도직 수행에 모범을 보이는 분이다.

성직자가 되겠다는 어린 시절의 꿈은 6.25 한국전쟁으로 무산되었으나 성 베네딕도 수도원과 성 프란치스코 수도원에 입회하여 여러 해 동안 수도 생활을 하고 환속해서는 모범적인 성가정을 이룩하며 레지오 단원과 빈첸시오 회원, 교리 교사 등 평신도로서 여러 가지 사도직 수행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그러던 중 중국의 가난한 교회상을 본 후 1993년 부터 21 차례나 중국을 왕래하며 선교에 열을 올려, 처음에는 목주와 성경 등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으나 중국 교회가 가난 때문에 성당을 건립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부터 헤이룽 장성(黑龍江省), 지린성 (吉林省), 그리고 헤이룽장성 성도인 하얼빈(哈爾濱) 등지의 성당 건립 기금을 국내 각지를 다니면서 독지가를 찾아 도움을 청하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기금을 마련하였다. 그 결과 5 개의 큰 성당을 지어 축복을 받게 했고, 미완성 대형 성당 도 2 곳이나 공사 중에 있으니, 이러한 박경수씨의 열정에 감동한 중국 정부가 성당 부지를 마련해 줄 정도였다. 밤낮없는 활동으로 과로가 겹쳐 중풍에 걸리기까지 했으나 교회와 이웃을 위한 줄기찬 사랑과 열정으로 봉사의 나날은 그칠 줄 모른다.

박경수씨야말로 참다운 신앙인이며 우리가 찾아 표창하고자 하는 작은 예수요, 숨은 그리스도인이기에 2000년 대희년맞이 평신도대회를 기해 가톨릭대상을 드리게 되었다.

(사랑 부문)

KBS 『사랑의 리퀘스트』

한국방송공사 '사랑의 리퀘스트' 프로그램은 사회 전반에 고조되어 있는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소외되기 마련인 어려운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고 작은 정성을 모아 전달함으로써 그들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어 함께 사는 사회의 미덕을

실천해 가는 프로그램이다.



고 있으나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작은 정성으로 큰사랑을 이루는 데 동참할 기회를 주고 있다.

‘사랑의 리퀘스트’는 소년소녀 가장돕기, 장애인의날 사랑의 손잡기, 교통 사고 유자녀를 위한 사랑나누기, 무의탁 실향민 돕기, 결식아동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 청각·시각 장애인 돕기 등 프로그램(매주 토요일 오후 7시~8시)을 통해 지금까지 140억 원을 모금해 30,848명(59 개 단체 포함)의 수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이는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며 이웃 사랑을 가르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유익하고도 바람직한 프로그램이기에, 그 관계자들에게 가톨릭대상을 전하고자 한다.

(정의 부문)

인천 가톨릭 환경연대



한 활동을 펼쳐 나왔다.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와 연령층의 연예인, 유명 인사를 출연시켜 이웃의 어려운 사연을 직접 소개하고 그들을 위한 진솔한 공연을 펼침으로써 시청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ARS를 통한 모금으로 1 통화에 1,000 원씩 모금하여 평소에 자선에 뜻을 두

가톨릭환경연대는 하느님의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1989년 인천교구 관내에서 시작된 환경운동 단체다. 그 당시 처음으로 시작한 우리밀 살리기 운동을 추진 하고, 교구 내 각본당 사목회에 환경분과를 설치하도록 홍보활동을 펴는 한편, 환경보전을 위한 강론과 소공동체 모임·교육 등을 통해 다양

1992년 7월 29일 조직체계를 갖추고 환경연구소로 창립을 본 이래 철저한 가톨릭 정신을 바탕으로, 특히 경기·인천 지역의 가톨릭 환경운동 활동을 줄기차게 전개해오고 있다.

생태계 보전 운동과 생명 운동을 전개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고 친환경적인 지역 공동체 건설과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환경연대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

- 환경관련 소식지 및 자료 제작 배포
- 환경자료실 운영
- 각종 심포지엄 및 교육활동
- 자원 재활용운동
- 인천교구 대의원회의 환경사목위원회 운영
- 아나바다 가정 만들기 등 생활실천운동

위에 열거한 일 외에도 각종 환경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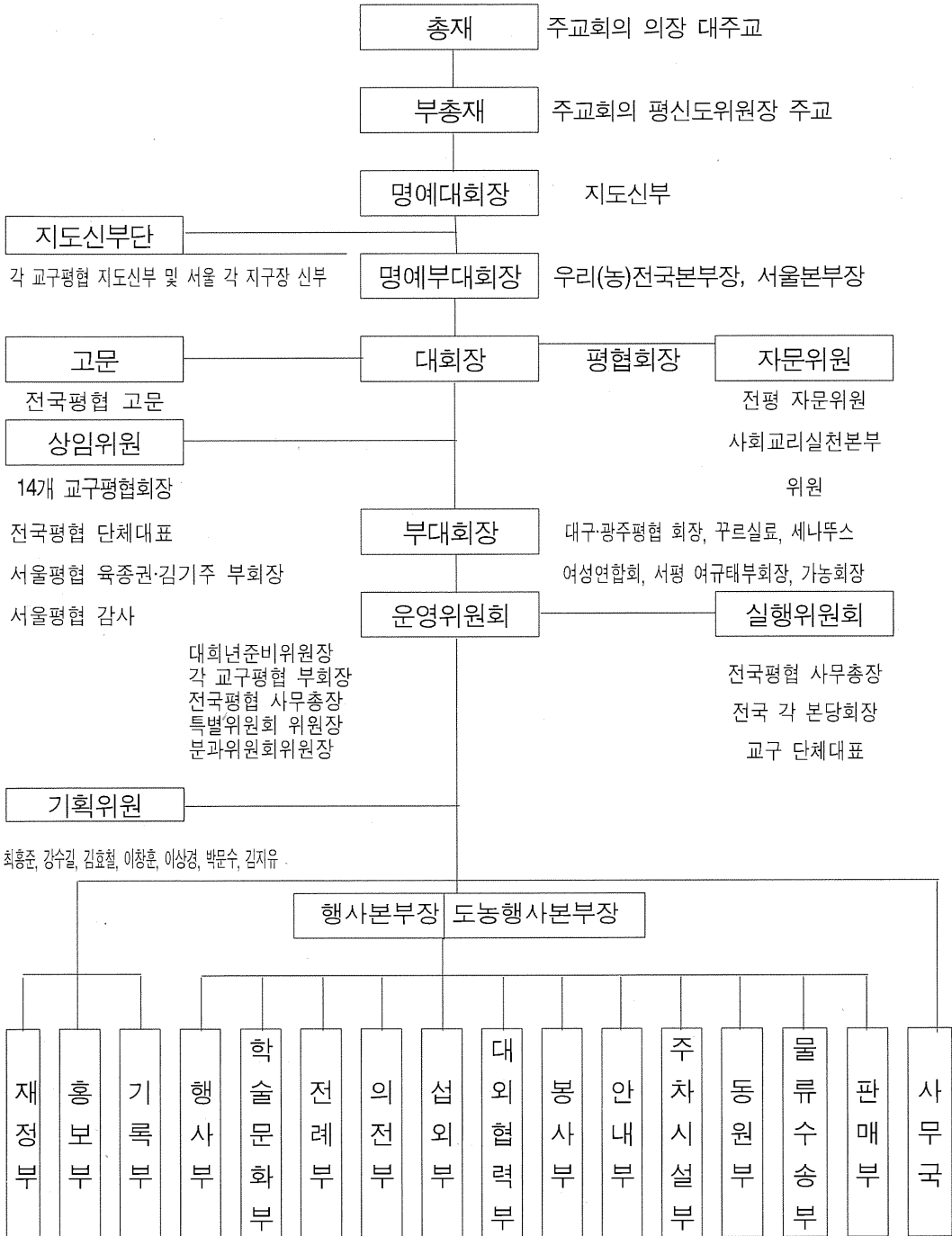
환경 파괴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이 시대에 가톨릭 환경연대가 앞장서서 교육, 홍보, 생활 운동 및 연구 활동을 통해 계몽하고 실천해 나가고 있음은 2000년 대희년을 앞두고 더욱 더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일이다.

진정한 그리스도 정신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힘차게 활동해 나가는 가톨릭환경연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가톨릭대상 수상자로 결정하였다.

VI. 행사 기구

□ 평신도대회 1999. 10. 21.

□ 도농한마당 잔치 1999. 10. 24.



□ 행사 기구

- 총 제 : 주교회의 의장 정진석 대주교
- 부 총 제 : 주교회의 평신도 위원장 김옥균 주교
- 명예 대회장 : 지도신부 정월기
- 지도신부단 : 장세현, 조환길, 이범배, 임상엽, 김정수, 서중선, 김영필, 신현만, 정운화, 김병운, 허승조, 임홍지, 송열섭, 노연웅, 황인국, 김정직, 박순재, 나원균, 최용록, 황홍복, 안경렬, 김병도, 최창하, 박준영, 오태순,곽성민, 조원행, 김득권, 염수정, 박기주
- 명예부대회장: 김승오, 이용희
- 고 문: 이창복, 엄익채, 한용희, 박정훈, 이관진
- 자 문: 손춘수, 신치구, 허 기, 장혁표, 박찬도, 김영진, 박인환, 한홍순
- 대 회 장: 류덕희
- 상임 위원 : 육종권, 김기수, 김진석, 손병두, 이관진, 이광호, 김영대, 강형일, 강수길, 오미호, 조정오, 이진선, 허항무, 김경무, 최종태, 장덕필, 김대균, 여규태, 전덕환, 김성호, 김금숙, 강준기, 강석준, 최의순, 차고모펠리짜리, 라이반나, 최의순, 송 숙, 채규태, 최연정, 김경환, 김기주, 김서곤, 김형열, 남기충, 노연웅, 변평섭, 양천진, 오영창, 이규정, 이명원, 정운주, 최옥식, 황재웅
- 부 대 회 장: 최옥식, 김기중, 강형일, 유양수, 박애주, 여규태, 김영대, 이진선,
- 운영 위원장: 강주희
- 운 영 위 원: 유병구, 민영기, 신화자, 정만권, 최운수, 김성자, 서우평, 오희철, 이유남, 김 철, 송준경, 김경희, 김홍양, 박자근, 허현도, 이중길, 전남운, 김해걸, 남기욱, 김수자, 양철화, 김기준, 남경우, 장봉숙, 장영위, 이한양, 엄중관, 우재근, 고정훈, 김영남, 권돈구, 강춘섭, 장진숙, 심성택, 김동주, 박임주, 이주철, 고용성, 김영창, 김홍찬, 김학선, 경한석, 어장수, 한혜수, 오향균, 한광수, 최홍준, 김형중, 윤갑구, 김길성, 최광석, 이윤자, 강수길, 서만규, 이홍균, 윤 학, 류정묵
- 실행위원장 : 전국평협 사무총장 강주희

· 실행 위원: 서울대교구 본당회장 - 김영철, 김명진, 허항무, 김만옥, 허 정, 한상우, 박대환, 함태원, 도문희, 김성훈, 홍성림, 김임주, 이상곤, 도제민, 김명기, 김동훈, 이재승, 허상태, 최병옥, 김명섭, 구자역, 최영근, 안 실, 최영식, 방조현, 장세환, 윤상원, 이진태, 유양수, 조병현, 김학민, 김건태, 이병창, 김인호, 민경호, 윤주영, 윤영일, 엄종석, 정시복, 정달영, 서봉도, 최완용, 김진배, 박영우, 장병선, 이순희, 이귀철, 김 월, 박성조, 김승태, 이진구, 장대일, 김상목, 여규태, 진태식, 황춘자, 최창석, 김명제, 김희성, 김형국, 한상무, 김종규, 김종구, 광재신, 이종원, 이재진, 김순일, 김윤구, 신종구, 류재성, 이강덕, 오계림, 박종승, 김종만, 김동규, 김정수, 장광현, 김성오, 권태후, 강진용, 김대천, 김완기, 이복상, 박성일, 조창섭, 정경신, 조부희, 김한석, 정선채, 안우성, 최재열, 박태용, 김창래, 박명규, 박정근, 민영식, 박찬규, 주국태, 변영남, 전승국, 이형용, 김경동, 문무휘, 고신관, 신광범, 김형재, 현대진, 남상현, 최의기, 황보명, 조병철, 박휴서, 윤갑구, 조기찬, 신철호, 정재상, 김형준, 장종호, 조철성, 김현욱, 김다조, 김정길, 김영기, 김학렬, 이필봉, 석호식, 박일규, 김청옥, 남무조, 김인섭, 조항석, 이수영, 손병두, 이영표, 최정욱, 정무부, 김관신, 이동일, 강대홍, 나상문, 김현주, 이 춘, 최원규, 정승환, 이본수, 홍성신, 서인형, 임승운, 신영철, 손인현, 차용섭, 정규원, 이종옥, 김길태, 김종국, 이형수, 이순재, 방달호, 박준형, 은 진, 최병준, 이종대, 정진석, 이덕희, 김남식, 이강추, 김길성, 이정수, 정운식, 유재식, 김명기, 유년희, 노정석, 위천모, 이상현, 최남열, 정성우, 이현배, 최봉우, 홍현동, 엄경득, 이만재, 이기용, 이병허, 배인병, 심제일, 방삼규, 조남성, 박인실, 이성규, 이강현,

□광주대교구 본당회장 - 김일채, 서원석, 김영대, 김광웅, 홍의웅, 조송래, 최우진, 박재형, 류경현, 김국태, 조종현, 용남섭, 양희봉, 이계수, 김길남, 김종후, 오백균, 강영송, 이두현, 이기식, 노봉열, 김광희, 서중남, 선복동, 신형식, 오종남, 장용기, 박청광, 권충화, 김영수, 고 호, 송태주, 김재광, 오동택, 홍영민, 김영을, 정수남, 권근수, 박삼량, 박승문, 문오성, 노상익, 박행진, 이남주, 지춘상, 정복수, 신종오, 김태현, 이복석, 김상범, 양창승, 나철균, 윤승혁, 이계익, 이민교, 김창환, 김형수, 김성곤, 김보경, 추광환, 김학선, 이창수, 김두식, 박행일, 김만수, 김홍선, 정제룡, 김정언, 위희근, 임재철, 박경훈, 김양빈, 강환우, 이인희, 박옥도, 정완실, 주건채, 안덕호,

김황중, 정진호, 박만중, 박상길, 정한수, 이건호, 박원근, 김용산, 이종암, 이인옥,

□대구대교구 본당회장 - 최창대, 최명환, 정광식, 도종원, 이문길, 배광섭, 이진부, 김진창, 권응조, 송진선, 배정동, 이재봉, 김영태, 배상복, 노정규, 이용기, 류태열, 정추현, 김도현, 오영목, 권상운, 정연환, 한용규, 김준극, 채기환, 권오선, 정양웅, 이상세, 조병도, 조영식, 문창환, 양태춘, 손성락, 최호성, 김태봉, 백중현, 장영옥, 여후동, 박영원, 박준희, 이철재, 황병국, 김태근, 김창수, 백학래, 김중현, 김우식, 정제명, 신재기, 신영일, 조남선, 송명수, 꺾대영, 이채영, 장영곤, 정준용, 한상우, 설한규, 서윤덕, 류휘국, 박성호, 김문갑, 정춘택, 김화성, 성호경, 김규환, 이병희, 박순걸, 정봉도, 김희주, 윤경환, 장수덕, 전형우, 신옥균, 윤덕근, 이규수, 하종석, 최병락, 김의순, 장인원, 김일규, 최재목, 이점득, 이원기, 정건호, 성태용, 심종섭, 김맹규, 원정길, 황보영진, 주재인, 정철영, 박재정, 이동창, 김유탕, 최인식, 김정화, 양동환, 문현호, 노용윤, 윤종윤, 김영규, 임상희, 유상열, 손상배, 최재욱, 김명수, 문영곤, 백태선, 김광석, 김성규, 김상문, 박장호, 박동수, 조외남, 김영수, 정한길, 문경주, 하재철, 배석출, 전성배, 전병원, 구자우, 김경태, 정홍갑, 이원기, 최남조, 최연환, 오길수, 김광수, 최수열, 이종개, 김주식, 심수호, 박영태, 최달현, 우윤정, 박청수, 이문성, 박실경, 김한태, 윤춘식, 김창수, 남덕희, 박진출, 조희윤, 박만조, 진병준, 황극술, 김홍철, 김창덕, 김영호, 박영복, 구본술, 석경도, 김종택, 윤재곤, 정영길, 김규삼, 손태수, 이기만, 박옥선, 홍명권, 백종갑, 소병조, 신동선, 김영하, 장명수, 김민평, 유도식, 류시호, 이창용, 이영조, 이명복, 이상락, 김동진, 이석순, 김영춘, 이상도, 안병출, 김영준, 이경분, 박조용, 이학주, 김술이, 정우상, 최상기, 이상만, 김기곤, 김성봉, 김왕기, 장준계, 김진국, 안의구, 장재규, 허수권, 정차규, 김교명, 변덕우, 김상수, 김영부, 전우식, 설오과, 권기하, 이정희,

□대전교구 본당회장 - 오희원, 김임호, 신영철, 정행수, 최학현, 안기선, 남해현, 강희성, 김달수, 김태정, 방성식, 이창순, 장세진, 김낙웅, 김광진, 김석환, 이기형, 임준석, 전인석, 이충휘, 복진을, 오희철, 강현중, 이상희, 문 화, 조영길, 김유학, 여현행, 김광열, 서우평, 백방선, 이수호, 정연부, 백승지,

□마산교구 본당회장 - 김육태, 진재문, 정순만, 김종구, 손정식, 임춘성,

송명호, 윤영찬, 윤영환, 임동명, 장석희, 석준호, 안승욱, 남용현, 강용진, 하현관, 김석만, 조영규, 김태근, 원영우, 박정호, 조대제, 이상보, 노동식, 이유열, 김상술, 이철수, 장세곤, 김진용, 박원식, 성종대, 구용웅, 강호중, 류시창, 이병옥, 정은교, 장용이, 설용규, 곽준식, 박민익, 정학중, 김종대, 최군석, 김영식, 정태규, 이건호, 최재중, 정광기, 조정식, 원경희, 강병순, 이광술, 이정태, 김갑철, 도영만, 엄수훈, 정계석, 이복봉, 노두현, 서필수, 이주연, 손 데레사 수녀, 성복전, 안천수, 김양식, 이희섭, 권오복, 김충효, 구홍철, 김종호, 박창용, 서달생, 김금석, 이원규, 유봉섭, 김재명, 이재형, 김응조, 강세훈, 이태영, 정정열, 정순갑, 김영석, 지상석, 박인조, 장준덕, 정종화, 이용수, 이창걸, 김경숙, 김영연, 박호재, 김영수, 황영규, 김병옥, 김철수, 박화일, 박용하, 강석천, 노화식, 주한국, 오혜극, 오홍문, 이민득, 최수자, 최계균, 채정조, 이양식, 구형서, 박제운, 김종현, 강오수, 류재룡, 김경식, 홍화식, 황성용, 심재숙, 박윤배, 추점윤, 이문도, 허순식, 이계기, 정상조, 김성수, 고창철, 이성옥, 최재림, 권문택, 이정준, 조영철, 손금석, 김석철, 윤정국,

□부산교구 본당회장 - 김홍기, 박순일, 임홍수, 강영수, 박민규, 황성일, 방충식, 김덕구, 문영학, 설충윤, 이상호, 박윤균, 박세준, 조현오, 김영범, 박재열, 홍봉기, 김영환, 이종만, 김영철, 김종일, 김재범, 유두승, 김진열, 김성봉, 한준택, 김경태, 변관현, 김대동, 강영석, 이일수, 김오봉, 유정근, 신재일, 정희윤, 김영식, 최창환, 심수현, 이송희, 서정훈, 정봉현, 문영무, 김부생, 김장섭, 배승완, 홍병기, 이후돈, 손유성, 정진배, 강기우, 이종순, 박쌍수, 장혁표, 차덕안, 신성부, 전익수, 김종천, 김용준, 유승출, 오세전, 이치현, 이종만, 전인규, 박홍일, 장취복, 이기만, 신태식, 신일성, 신재일, 정찬성, 곽원도, 윤재봉, 황윤일, 고정환, 김정수, 김수봉, 박성부, 김중수, 오충환, 이강석, 이해규, 김두원, 김종철, 조승치, 송철호, 이종인, 윤동원, 최석순, 이춘길, 김용호, 김남식, 박현대, 조필순, 장원모, 김명관, 최경도, 이종술, 신정태, 김성철, 황우식, 김학수, 정찬두, 조병대, 정성환, 황정수, 장부영, 장병식, 이종훈, 조용진,

□수원교구 본당회장 - 윤석철, 조광현, 남궁석, 최영호, 백영부, 정소리, 김성제, 오태영, 김석희, 이호실, 김광훈, 현상근, 원근식, 백선기, 엄태영, 양철화, 이상하, 오봉환, 박동환, 이은우, 안용주, 김영인, 이호영, 김춘성, 송춘석, 조진우, 김을수, 김재겸, 이기천, 김형용, 남경우, 김용구, 유세호,

김수원, 고창현, 배선호, 정기은, 박래익, 문종현, 정진성, 전경섭, 최재환,
 김재복, 김영준, 조동세, 백남주, 배명규, 권혁룡, 이덕우, 지상범, 박중길,
 윤세호, 유창환, 이규봉, 송현섭, 이한수, 한인희, 윤건노, 권덕출, 서화택,
 박수동, 최재순, 이근학, 김우룡, 이명렬, 김일남, 김홍원, 김정학, 김삼성,
 이종두, 오세영, 권오범, 정규준, 조항곤, 정철도, 안채준, 임봉규, 김정도,
 김일복, 김장규, 이정희, 장동환, 김영빈, 하상권, 김명우, 이여순, 이은우,
 이도영, 이각교, 이원호, 최기영, 조규영, 윤광희, 박인식, 한변용, 김소남,
 강건상, 조성용, 강희광, 정해만, 김진두, 조성래, 박승범, 박종화, 박우근,
 이내수, 신운성, 김남국, 김종서, 고기환, 조병옥, 고종일, 유명하, 박인오,
 이용연, 윤두현,

□안동교구 본당회장 - 이상대, 이용해, 최현경, 김혁동, 김정배, 조성모,
 박종삼, 임경탁, 성영중, 이시하, 장영위, 현 준, 안영철, 최운락, 장종덕,
 전상봉, 김성태, 김종윤, 최상우, 현대오, 김용옥, 송진기, 김정수, 장서규,
 이인희, 김종삼, 김학진, 정영화, 민병삼, 장기택, 정제경, 조동희, 권순호,
 황종선, 권연희, 전상숙, 안정기, 황칠성, 황영준, 서석현, 정인모, 권태명,
 최해수, 김순득, 김상규, 최옥분, 이차현, 오태훈, 오천호, 송경흡, 김홍순,
 전병철, 박정암, 권오태, 김창수, 정정옥, 김을봉, 정태묵, 황은주, 김익동,
 박상철, 유희락, 강신탕, 임원하, 김경식, 허춘길, 김정태, 김동숙, 이용태,
 김태기, 김광자, 김동길, 우정학, 권종원, 이상명, 오준원, 이병권, 류종화,
 김정일, 천점순, 최성분, 신현수, 최성기, 손정익, 김병희, 김덕수, 장경팔,
 박음진, 권중진, 강영희, 박봉연, 장기원, 박병권, 윤성재, 심운택, 이광용,
 김종진, 박상환, 염경준, 최병수, 최영환, 김길현, 고길성, 김복기, 이무용,
 이종호, 나수엄, 이제학, 김성수, 김학철, 송재욱,

□원주교구 본당회장 - 정운해, 고정훈, 조성구, 황인안, 안승부, 정인권,
 이규성, 남궁은, 원규희, 김상림, 박문석, 정현수, 허명환, 안중열, 진홍식,
 조귀철, 김구복, 장준기, 이종업, 신해석, 유성옥, 이상국, 김진영, 최대철,
 송봉규, 정연작, 김용수, 유종원, 성한모, 김남철, 권태욱, 박근원, 서상순,
 조강호, 홍돈규, 김기봉, 정문선, 김병감, 어해선, 심연택, 윤제선, 정하진,
 이승웅, 이시복, 이강석, 윤문용, 조종진, 이진선, 조영준, 이명근, 박호찬,
 민수중, 강종원, 박두식, 이동직, 권서규, 이필순, 임형순, 정현모, 조운현,
 심주택, 배갑순, 서은석, 김우영, 이낙한, 최완규, 김종월, 원용학, 장두석,
 김선자, 정수봉, 남원식, 신대식, 김원식, 권혁화, 전만우, 민병규, 이석주,

김수남, 김시하, 김창근, 이상익, 정상희, 조상규, 여인근, 이명숙, 박정식, 김순철, 김종렬,

- 인천교구 본당회장 - 심평택, 구자갑, 김용식, 김도선, 박명도, 홍현표, 김현주, 신선호, 김갑철, 이일량, 박길홍, 지명성, 홍석만, 허 원, 백승찬, 조수원, 송병현, 하광선, 이용덕, 조평식, 김두병, 고영진, 정진철, 여선구, 윤석이, 박상욱, 김중식, 서순학, 신창섭, 이강수, 권용규, 유병연, 최창식, 김수연, 심창용, 장기선, 방부일, 김정운, 서재석, 곽우동, 김상현, 심인보, 김동수, 기희준, 고두옥, 신인철, 장동열, 이태복, 조대현, 이재문, 이초영, 이건재, 김상호, 오수범, 김기태, 이덕기, 한내석, 정재철, 이효정, 신사영, 한남식, 성준웅, 홍창식, 정행원, 김건일, 임태영, 임부빈, 진영선, 권태윤, 김연복, 박문국,

- 전주교구 본당회장 - 김종서, 김수곤, 이삼귀, 한상규, 송희선, 위상양, 안영태, 심성택, 유춘웅, 최공엽, 서동호, 임해건, 박영근, 박일천, 신일균, 최경림, 김영곤, 유철중, 윤영이, 이동우, 최승호, 강영만, 이재갑, 장춘식, 김인선, 김광수, 김용관, 박 승, 전영수, 박한용, 김성익, 이진호, 윤평강, 김기호, 김형배, 정충일, 조동근, 황호걸, 정대홍, 문경남, 박기배, 소언영, 서병모, 최화성, 황순구, 박풍식, 김명식, 김낙천, 조건규, 김치덕, 김태술, 김남기, 김한규, 박성빈, 차복철, 오영화, 정길진, 이창호, 정정만, 박건용, 공무택, 김초곤, 이두홍, 허인석, 송남수, 박동표, 이한구, 윤근임, 유 석, 오재욱, 김만용, 양승만, 이영선, 김좌기, 김영택, 김신수, 김의수, 김복동, 문홍식, 양현식, 김영진, 임희택, 김봉자, 이경애, 황호례, 조은자, 정연풍, 김권춘, 한상철, 조대식, 최완봉, 김순이, 이문자, 박동순, 노지식, 이용성, 한상돈, 민승덕, 이용안, 김정중, 박종복, 정기술, 최갑봉, 김한석, 김옥순, 장순선, 김기초, 정의철, 박노희, 이인노, 전상규, 박정근, 박석규, 허정화, 정만희, 김하영, 김연식, 진재성, 이삼환, 송명수, 윤홍귀, 김종웅, 오명용, 박남신, 선진순, 박종근, 황재규, 김영환, 이영자, 황점술, 송준선, 오래연, 이필규, 김겸준, 김용운, 이원상, 조정식, 이대건, 김제열, 박문채, 임순선, 홍순세, 박재만, 서순철, 고용기, 홍성철, 김진복, 김순학, 서석우, 전순덕, 장기천, 박순섭, 오정길, 박석순, 이석구, 유천희, 최영범, 이행남, 양병호, 강상문, 김복만, 김차석, 하정택, 홍성도, 김원섭, 김봉옥, 전판술, 송숙녀, 김영자, 백금순, 심귀동, 박성정, 박태양, 송기창, 유형규, 김경영, 신연식, 유일봉, 한동수, 윤봉태, 최완석, 박규식, 박명규, 박희남, 이금우, 하성년,

서덕봉, 정한명, 유준규, 박희완, 최해관, 김현국, 최봉림, 하청수, 김영길, 김태수, 김학선, 이동률, 이정수, 김성열, 김종현, 원철희, 양제수, 김종환, 유병선, 정만호, 이춘선, 이경준, 강종용, 김두석, 박동근, 최봉주, 김기영, 권인상, 이장재, 원도희, 박점동, 김춘섭, 강호균, 이원준, 서세환, 박금융, 김진열, 안동주, 박준호, 김기술, 김만용, 신창환, 김하연, 김순호,

□제주교구 본당회장 - 문승배, 김영창, 임시홍, 김치홍, 이근실, 이창훈, 양상숙, 고대석, 임창수, 이의형, 김홍철, 박용근, 좌보관, 고승호, 문봉일, 오부일, 박성남, 송자숙, 현종진, 양성언, 한수관, 백운권, 장미경, 손영신, 김서연, 고진숙, 문동욱, 정선녀, 양인숙,

□춘천교구 본당회장 - 이기원, 이상호, 이종호, 김홍찬, 김정호, 이만재, 김승래, 정익순, 김성근, 김종록, 변용섭, 길윤배, 한석동, 황영진, 이공수, 한기식, 송호섭, 김봉근, 김희만, 박호근, 홍재현, 박병학, 이현주, 김구홍, 김양섭, 하광수, 이경준, 전광금, 박창근, 전병성, 장영규, 정인교, 현종찬, 박춘호, 김영환, 윤홍주, 권승주, 함영배, 탁정수, 서낙원, 정형민, 최진철, 김인선, 윤병국, 이건필,

□청주교구 본당회장 - 성연덕, 연규복, 김춘복, 박우규, 김명래, 신현완, 이병훈, 박혜규, 안중식, 임영환, 조민식, 전천식, 이상운, 이관우, 유승윤, 정성택, 장영희, 송석요, 정인명, 정창호, 김태환, 김종철, 신수균, 김제영, 이강로, 이권호, 이상찬, 신태형, 김용구, 황규세, 김경환, 이영현, 이선희, 양춘호, 고병덕, 신경삼, 박고열, 차응옥, 김원형, 장제국, 정용원, 봉하춘, 박선기, 박용배, 반재섭, 이홍진, 송기선, 권돈호, 곽종근, 박명식, 이광재, 조기현, 이등림, 최현상, 이은만, 김학수, 진 근, 김규택, 서병열, 정용기, 구자송, 김석호, 정용해, 강윤중, 류시혁, 서정자, 신석순, 최윤호, 허원희, 안기두, 홍웅식, 정영근, 여태선, 정교철, 강태경, 강을중, 박동희, 윤명섭, 안광희, 오성균, 이신우, 권영재, 봉원윤, 신금순, 윤교철, 박병오, 이동구, 김성광, 강태수, 이종구, 강호영, 조종한, 조봉출, 반영찬, 정태수, 서정은, 이문용, 이성익, 이정노, 황의중, 이상옥, 도곡지, 이석화, 박원용, 김덕준, 김상태, 유진열, 유평열, 김기찬, 김기춘, 박생현, 구운림, 이하영, 김완배, 남정현, 권수동,

□군중교구 본당회장 - 오향균, 김진섭, 우성열, 송병수, 배종욱, 이병태, 김중율, 정종진, 이형원, 석 철, 정현봉, 김 청, 오성균, 김원봉, 이흥기, 김영래, 황성만, 김현선, 홍성익, 양영보, 조정환, 방원팔, 이철희, 정재호,

이준복, 장원교, 박희섭, 강성룡, 오예진, 김문범, 김원화, 김창훈, 이국범,
 이승우, 신현수, 노항봉, 최순오, 김동대, 전천운, 송영진, 전흥기, 문병순,
 최병우, 최경수, 강병수, 안남영, 이진환, 김철주, 이영희, 안인규, 남은우,
 조영섭, 박규복, 신응균, 박재구, 이지영, 박성묵, 남응우, 이상욱, 김세창,
 박재구, 설중일, 양현구, 김종민, 임반응, 조봉래, 조학제, 박길주, 김 호,
 정찬중, 이환준, 신흥준, 김종국, 조창화, 김용구, 신상돈, 최연찬, 이병진,
 김재호, 임형돈, 서홍택, 장원교, 위진호, 홍연관,

□서울대교구 단체대표 - 홍강의, 강형일, 김기혁, 김도경, 김득수, 김면규,
 이춘일, 김성호, 김양희, 김연희, 이현주, 김종배, 김진석, 최영철, 정연순
 김현식, 황영진, 민병덕, 박고빈, 김혜숙, 김금숙, 박정훈, 김성수, 라이만나,
 서동오, 김병근, 이광호, 이관진, 이기안, 이재수, 여규태, 전세권, 박찬도,
 정현주, 조혜옥, 최종태, 차고모 펠리짜리, 한철주, 허항무, 홍순기,

□광주대교구 단체대표 - 조한유, 한동수, 김임수, 황규열, 최일연, 정종부,
 조상현, 김재중, 이명화, 김영대, 안문언, 신봉금, 정홍태, 허용만, 이창기,
 배삼태, 김병찬, 이병윤, 양운승, 신화자, 김경애, 문형두, 김안자, 한상태,
 김영수, 신상철, 방순희, 박득수, 이현천, 정광종, 김재호, 박봉간, 윤현중,
 이태웅, 박준흠, 염원규,

□대구대교구 단체대표 - 김계순, 문희탁, 정만진, 문만화, 존라우, 장혜숙,
 임경범, 김교수, 윤진영, 김문화, 정시중, 김경자, 이선자, 이영환, 원유영,
 조우호, 권성오, 김성자, 전애반젤린수녀, 허수만, 안창호, 이진훈, 전병인,
 이수희, 장혜균, 백태흠, 고봉근, 박혜수, 서창환, 유영근, 백수일, 최미화,
 정월옥, 안추지, 신상국, 오철수, 성 글라라 수녀, 정보영, 김정순, 정경애,
 정화선, 이종혜, 김판석, 이 헬만 수녀, 배병탁, 박순오, 한진오, 정정오,
 우종찬, 유재수, 조아마테아, 손재출, 김상민, 우수용, 강인식, 신양희, 안혜근,
 손인호, 조기현, 김성숙, 장수덕, 권희태, 강문주, 최재용, 오숙내, 김정일,
 김경숙, 이영태, 장세환,

□대전교구 단체대표 - 김재홍, 이경애, 서우평, 이 영, 정구선, 정남영,
 오만진, 권오화, 송호성, 안기만, 김기병, 김종화,

□마산교구 단체대표 - 김연희, 신상철, 손진욱, 하길남, 남정현, 김호제,
 홍기봉, 박달현, 이종래, 정희교, 조삼영, 윤영환, 이영치, 정정길, 손상수,
 이용갑, 박경리, 임춘성, 정수성, 염경숙, 김경희, 김영희, 이선희, 최재선,

김동개, 김종기, 하초자, 신장욱, 김진식, 박점돈, 박종필, 김홍양, 허 영,
박정규, 임춘호,

□부산교구 단체대표 - 김해걸, 이성학, 구연욱, 김종근, 하경철, 이무근,
김홍만, 김수자, 배봉현, 백상락, 정익성, 권영숙, 안상돈, 김중호, 조성태,
박자근, 신용섭, 박수철, 박태화, 김염훈, 김영주, 박정근, 박명훈, 한복종,
김추자, 임정천, 정수원, 배달순, 한용호, 김종국, 이형철, 김세훈, 김명숙,
이진호, 김학용, 김종호, 안병희, 방수남, 유순극, 김창순, 손영준, 김덕운,
손경자, 호민수, 김덕규, 옥종호, 이문오, 오정화,

□수원교구 단체대표 - 송병선, 이윤희, 송현석, 차영준, 윤용배, 조은순,
서북원, 백규현, 이원태, 양철화, 서종선, 정기온, 홍정욱, 한연흙, 김영희,
서종선, 정순자, 송병선, 서제찬, 이원태, 진영조, 김영옥, 임규배, 정운택,
원강희, 조옥현, 백선기, 한연흙, 김정원, 나경환, 김정자, 이규철, 김 중,
조원규, 이무웅, 송영오, 차진호, 홍성영, 정운택, 손학두, 김정선, 이원태,
유병화, 김영옥, 고수복, 김학렬, 박원효, 박종만, 김상래,

□안동교구 단체대표 - 이상식, 강순연, 서명중, 권무영, 정동진, 장계순,
신태원, 강신덕, 김용규, 이현욱, 이순심, 오일창, 이승준, 정혜선, 최명자,
윤지홍, 강오석, 이춘자, 이상조, 김태숙,

□원주교구 단체대표 - 예희숙, 김영남, 이민호, 이관표, 신승은, 이정숙,
안준호, 전영숙, 조관휘, 류형중, 신명식, 배윤경, 이용환, 조종만, 김선욱,
장계학, 신현구, 정정지, 김영옥, 김영석, 김옥선, 이태연, 이규영, 남궁은,
이인식, 조동수, 정명식, 손병석, 백선희, 김진승

□전주교구 단체대표 - 박임주, 고흥석, 이주철, 안득수, 채수현, 심연무,
김후만, 황희상, 이건태, 김기순, 김길석, 이덕자, 이규현, 김명웅, 정우진,
최남숙, 김성길, 진성복, 조풍기, 이광석, 주용철, 박성석, 신기술, 강기천,
배기창, 김민경, 이성우, 이재후, 박민중, 양종규, 문치상,

□제주교구 단체대표 - 김희녀, 고흥성, 홍택훈, 박부송, 고흥옥, 김창미,
이철원, 강희정, 김영환, 양종석, 안문수, 김기협, 장시영, 이원희, 김경환,
김영자, 서두옥, 고방림, 이용웅, 이창준,

□춘천교구 단체대표 - 유병권, 김희목, 이경수, 홍의웅, 박영철, 허은숙,
조병희, 강동환, 이명원, 박규상, 서낙원, 연병국, 김길배, 강내원, 김제주,
김현수, 변재섭, 유진욱, 박규호, 김현주, 이진용, 김희순, 이한돈, 김상준,
황승모, 신관식, 전신제, 이명규,

- 청주교구 단체대표 - 이완구, 이은규, 양천진, 김영자, 정동복, 박정섭, 정용기, 장광동, 황선욱, 정필문, 권명자, 노세길, 김화순, 이규순, 전천식, 경한석, 송영일, 성우현, 황정유, 이혜숙, 김동기, 이열우, 최우섭,
- 인천교구 단체대표 - 장진숙, 이충희, 안베다, 신명호, 안광필, 좌윤순, 송숙자, 장현우, 이재문, 김종운, 홍충욱, 송리버, 서순천, 이두열, 이병철, 이경숙, 최대복, 이만재, 윤 석, 김현덕, 임형택, 황세현, 백명자, 박상설, 이강현, 정연오, 율용애, 권돈구, 김연욱, 김영숙, 김근태, 박창복, 김종천, 이영숙, 김성영, 이기훈, 김병설, 신민자, 홍성진, 오용호, 정형조, 장경남,

행 사 본 부 장 : 최홍준

도농협력본부장 : 류정목

제 정 부 : 이홍균, 박명준, 김용수, 강철호, 김봉실, 김완희, 박정희, 이태경, 이태훈, 임명수,

홍 보 부 : 이윤자, 임영숙, 김진복, 김혜덕, 마승렬, 오한택, 우광호, 원종배, 장병일,

기 록 부 : 김영걸, 김효철, 백창용, 양강수, 우재철, 이명화,

행 사 부 : 강수길, 신현철, 강시진, 김태현, 김해영, 이승호, 주희숙, 최세영, 홍종식

학술 문화부 : 서만규, 장주영, 김형두, 박문수, 안문길, 이은석, 이창훈, 조일봉, 조재용,

전 레 부 : 김두봉, 안병화, 유구영, 강석희, 김명관, 김정택, 양찬규, 이병순, 송정숙, 조석구, 차익순, 한상준, 한창수, 홍영미,

의 전 부 : 김길성, 박종기, 최대일, 송기택, 이명화, 임해천, 정낙희,

섭 외 부 : 윤 학, 박영선, 민경대, 강종진, 김기선, 김태식, 박용안, 박필섭, 이용숙, 조남인, 한남희, 한유한,

대외 협력부 : 최광석, 서석영, 명길량, 박종식, 배철수, 여상기, 유호열, 전홍제, 조만형, 조석송, 조인숙,

봉 사 부 : 김매영, 김희순, 김득실, 박혜숙, 서금순, 손연숙, 이근자, 전정옥, 정정숙, 최상자, 황희경,

안 내 부 : 최영철, 정연순, 이길상, 조진숙,

주차 시설부 : 윤영길, 이춘일, 박순규, 신봉우, 이광호, 하인호, 함형률,

동 원 부 : 홍대선, 박명신, 김동훈, 김명기, 김형국, 마영환, 문덕호, 박철용,

양근영, 차인호,

물류 수송부 : 김기준, 조배호, 강기일, 김성환, 김장효, 서돈석, 이한규, 지상옥,
김현정, 윤경중,

판 매 부 : 정옥기, 이보영, 김종환, 박충열, 신중철, 이상경, 정만권, 최종계

사 무 국 : 김지유, 김수현, 신동수

◇ 참가 전국 단체 소개

1. 한국 가톨릭 의사 협회

1. 개황

- 1)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 가톨릭의과대학 생화학교실 ☎ 02-290-1175
- 2) 단체창설일자: 1969년 3월 31일
- 3) 지도신부: 장덕필(니콜라오)
- 4) 대표자: 강준기(가톨릭의대 신경외과 교수)
- 5) 관련있는 국제단체 명칭 및 소재지: 세계가톨릭의사협회
- 6) 회원수: 1500여 명.
- 7) 발행회보명칭: 한국가톨릭의사협회지 발행부수 1500부

2. 주요 활동과 사업 내용

- 1) 정기 회원 모임
 - 매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회원들의 총회 및 피정을 교구별로 순회하면서 모임을 가짐.
 - 매년 11월에 회장단 모임을 갖고 협회의 업무를 보고하고 활동계획을 수립함.
- 2) 의료선교
 - 매년 아프리카, 남미 및 몽골지역에서 신부님과 회원들이 의료진을 구성하여 의료 봉사, 선교
 - 각 교구별로 국내에서 가톨릭의사회에서 무료 진료 및 구호 활동
- 3) 한국가톨릭의사협회지 발간
 - 현재까지 통권 25호가 발행되었고 연간 약 1,800부가 발간되고 있음.
- 4) 제20차 세계 가톨릭의사회 총회
 - 4년마다 열리는 세계가톨릭의사협회의 총회를 2002년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유치하였고 따라서 현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제 선정 및 홍보 활동을 하고 있음.

2. 한국 가톨릭 사진가 협회

1. 개황

- 1) 소재지: 서울 중구 저동 2가 17-1 프린스빌딩 301-2
- 2) 설립연월일: 1981. 5. 31
- 3) 회장: 한철주(바오로)
- 4) 지도신부: 고명철(아우구스티노) 신부

3. 한국 가톨릭 맹인 선교 협의회

1. 개황

- 1)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3동 12-5 ☎ 02)451-0333~5, FAX 02)459-3869
- 2) 설립연월일: 1986.3.13
- 3) 회 장: 김경무(아오스딩 · 서울맹인선교회) 부회장: 박정근(프란치스코 · 부산맹인선교회)
이병운(돈보스코 · 광주맹인선교회) 전국11개 교구 13개 맹인선교회
지도신부: 최선웅(야고보)

2. 목적: 회원간의 정보교환 및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맹인의 복음화와 복지증진에 기여함

3. 주요 사업 내용

1) 선교사업

- 주일미사, 교리교육, 각종 세미나 개최
- 신심행사(피정, 성지순례, 기도회 등 마련)
- 레지오 마리아, 맹인가정 및 병원방문, 영세맹인 생계보조 및 장학사업, 점자서적(성서, 기도서, 성가집, 기타 교회서적) 보급

2) 홍보사업

각종 보도매체를 통하여 맹인에 대한 인식 계몽 및 사회적 관심 촉구쪽 점자주보 발행, 녹음 신앙소리 잡지(「글로리아 메시지」, 「생활속의 빛」) 등 발행

3) 자원 봉사실 운영

맹인의 생활 불편을 감소시켜 재활자립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점자, 낭독, 안내, 전교, 학습 분야, 컴퓨터 입력 봉사자들을 활용하여 배치하고 있다. 낭독, 컴퓨터 입력 봉사에 관하여는 정규 교육 및 개별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4) 기타

- 전국 맹인레지오 마리에 피정전국 맹인선교회 산하 레지오 단체 합동 피정
- 한울회 장학사업: 생활이 어려운 맹인가정의 자녀와 맹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사업
- 점자 신앙서적 발행 및 보급(점자 성서, 기도서, 점자 레지오 교본, 기타 신앙서적)
- 한국 가톨릭 맹인선교협의회 총회 및 세미나
- 한국 가톨릭맹인선교협의회 회장단 회의
- 전국 맹인 하계 수련대회(격년제로 개최함)
시각장애로 인하여 신심 수련활동이 부족한 맹인들을 위해 야영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대자연속에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고, 각 교구 맹인선교회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함.
- 경로잔치(격년제로 개최함)
맹노인들의 외로운 삶을 위로하고 맹인 부모를 극진히 봉양한 효자녀와 맹인부모로서 자녀를 훌륭히 양육한 장한 아버이를 선정하여 추기경님상을 표창하고 이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회에 널리 알려 격려하고자 함.

4. 한국 가톨릭 나사업 연합회

1. 개황

- 1)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7번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07호
- 2) 설립 년월일: 1961. 10. 16 (재창립 : 1967. 10. 18.)
- 3) 대표(회장): 채규태 교수(가톨릭대학교 한센병연구소장)
- 4) 총재 주교: 정명조 주교
- 5) 지도신부: 김인수 신부(대전교구 성광마을)

2. 목적

- * 한국 천주교회의 구라사업 대행 * 사업기관의 협의 기구 * 나환자의 지위 향상
- * 복지 증진 * 자립 지원 * 신앙 지도

3. 사업 내용

- 1) 의료사업 지원
 - (1) 이동진료: 보사부로부터 일정지역의 환자에 대한 정기진료 관리를 위탁받아 이동진료 활동을 하는 기관과 이와 유사한 활동을 하는 단체와 기관을 지원한다.
 - (2) 입원 및 진료활동: 외래 및 입원진료 기관이 환자에 특수진료(본인 부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관의 운영 형편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3) 연구활동: 나병연구 활동을 격려하기 위하여 연구비를 지원한다. 나병 연구를 위한 국제 나 학회나 지역 학술회의 참석을 권장하기 위하여 여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의대생의 현장실습 및 봉사를 지원한다.

2) 복지 및 정착사업 지원

- (1) 양로원, 요양원 신설 지원: 고령화로 인한 노약자와 불구자 보호시설의 신축사업을 기관의 능력을 고려하여 지원하며, 정착마을 노인정 운영을 지원한다.
- (2) 사제관, 수녀원 신축 지원: 사제와 수도자의 상주를 원하는 마을에 사제관, 수도원 신축 사업을 일부 지원한다.
- (3) 노약자 보호 보조: 불구 노약자 보호시설의 운영 형편을 고려하여 보호 인원에게 생활필수 경비를 지원하며, 마을 거주 노약자(65세 이상)에게도 시설 보호자 수준의 지원을 실시한다.
- (4) 학비 보조금 지원: 2세 자녀보호 및 보호시설의 운영 형편을 고려하여 학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 (5) 봉사수도자 선교비: 시설기관이나 정착마을에서 봉사하는 수도자들에게 선교 활동비로 수도회와 마을 형편을 고려하여 지원한다.
- (6) 자립정착 지원: 정착마을과 재가자들의 자립을 위하여 상부상조하는 기풍을 조성하여 조기에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유상으로 지원한다.

3) 신앙교육

- (1) 마을 단위로 신앙교육을 실시하도록 교육비 지원을 계속한다.
- (2) 단체 활동 : 전국 사목회의 의식개발과 자립 협동 유대 강화활동을 지원한다.

4) 홍보활동

- (1) 사회복지 활동을 단순한 선교 차원만이 아니라 밝은 사회건설에도 봉사함을 인식시킨다.
- (2) 교회와 사회가 나눔의 기쁨과 보람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홍보하며, 교회기관 후원단체의 선전광고도 지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무료 게재한다.
- (3) 나병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 소외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5) 후원회 육성

- (1) 후원회원은 회원관리 개선과 해외지원 홍보 등을 통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탈퇴자 방지에 노력한다.
- (2) 회원들이 나눔 참여의 기쁨을 간직하도록 영명 분야 협의회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일정액의 협의회비를 부담한다.
- (2) 빈곤과 소외 속에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후진국 나환자들을 매년 8,000만 원 수준에서 지원함으로써 형제적 나눔을 실천하고 인류가 나병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공동 협력한다.

5. 한국 가톨릭 군종 후원회

1. 개황

1) 중앙회 겸 서울지부(서울대교구)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1 가톨릭회관 5층
☎(02)776-0457, 771-7600(교) 2601, FAX (02) 755-6842

- 설립 연월일: 1970년 1월 13일
- 총 재: 박성대(세자요한)신부/ 직무대행
- 지도신부: 조순창(가시미로) 신부
- 회 장: 이관진(베드로)

2) 대구지부 (대구대교구)- 대구시 중구 계산동2가 71 계산문화관내 ☎(053)256-0815,255-9470

3) 부산지부(부산교구)-부산시 수영구 수영동 353 성 .도마성당내 ☎(051)751- 3510, 751-3610

4) 마산지부 (마산교구) - 소재지: 경남 마산시 합포구 오동동 107-23 가톨릭문화원내
☎(0551)247-3058, FAX(0551)247-3278

2. 설립 목적

한국 군내에서의 군종신부를 통해 가톨릭 전교활동을 지원하며 장병들에게 신앙심과 도의심을 심어주어, 하느님을 알게 하고 신앙심을 바탕으로 애국애족하는 참된 군인이 되게 하기 위해 천 주교 신자로 구성된 단체로서 군종후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 업

- 1) 군종교구의 전교활동 지원
- 2) 군전교 및 사목활동에 필요한 사업지원
- 3) 장병신앙 및 도의 향상에 필요한 사업지원
- 4) 부대사업 및 활동지원

공소가 증가함에 따라 올겐지원요청이 급증하자 예산확보가 어려워 관할 군종신부를 통해 올겐 대신에 314대의 기타를 구입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군종병들의 활동을 돕기위해 40여대의 자전거도 일괄 보내지기도 했다 1993~94년중에는 고장난 온풍기를 갖고 있는 군성당을 포함하여 그 동안 새로 증가된 공소중 난로가 확보되지 않은곳을 위해 60여대의 온풍기가 보내지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전 군성당에서 보관중인 도금이 벗겨진 전례용품을 모아 도금을 하여 재활용하도록 하는 등 후원사업은 끊임 없이 요구되고 있다. 온풍기, 자전거, 도금수리지원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지금도 소요가 발생되면 계속 지원되고있다. 군종후원사업은 군종신부가 있는 곳은 물론 군종신부가 없는 곳이라도 어느 곳에서나 요구되고 있다.

군장병들은 전국에서 입대한 우리 모두의 형제요 아들들이다. 이들을 하느님의 아들로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교회는 전국교구에서 신부를 계속 군에 파견하고 있으며, 군종신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일이 우리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서울, 대구, 부산, 마산교구민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군종후원회를 초교구단체로 인준하던 당시의 모습과 같이 모든 교구의 참여를기대한다.

6. 한국 가톨릭 결핵 사업 연합회

1. 개황

- 1)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7번지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04호
- 2) 설립연월일: 1978. 5. 9
- 3) 대표(회장): 송숙 수녀(희망의 집 원장)
- 4) 총재 주교: 정명조 주교

2. 목적

그리스도께서 헐벗고 굶주려 병든이들에게 베푸신 특별한 사랑을 본받아 불우한 결핵환자들에게 형제적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국가 결핵 퇴치사업에 동참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사업 내용

- 회원 단체간의 협력 조성사업
- 해외 협력창구의 일원화
- 정부 지원창구의 일원화
-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4. 사무국 활동

- 1) 연대활동: 정기·임시총회 개최, 회원시설 방문, 모임, 대한결핵협회와의 연대(불우 환자 지원)
- 2) 홍보활동: - 결핵퇴치를 위해 올바른 치료 홍보 - 불우 결핵 환자들의 치료 및 요양시설 안내
- 3) 지원활동: - 진료지원금 지급, 운영비 보조 - 의약품 수급 지원
- 검사비 감면 혜택 - 기타 필요한 사업 지원
- 4) 교육활동(영성교육 포함): 종사자 전문교육 및 세미나 개최
- 5) 상담활동: 결핵 상담전화를 통해 결핵에 관한 의문점이나 가족상담, 치료기관, 입원 알선
- 6) 연구조사 활동 - 자료편집, 자료제공, 실태 및 의식조사 실시
-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활동

한국가톨릭 결핵사업연합회는 불우한 결핵환자들을 돌보며 환자발견에서부터 치료, 요양, 사회복귀에 이르게 하기 위해 회원 시설간에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핵 환자 복지를 위해 보다 나은 의료 혜택과 심리적 문제, 개인의 활동을 돕는 회원시설의 연합입니다.

7. 한국 가톨릭 간호사 협회

1. 개황

- 1)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50 ☎ (02)505-1279 / 1295)
- 2) 회장: 최의순(마리아)
- 3) 설립연월일: 1979. 5. 18
- 4) 지도신부: 이성만(토마스)

2. 목적

복음적 사도정신을 기본 이념으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회원의 신앙심 함양과 친목을 도모하고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사업내용

-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보 발간
- 선교를 위한 각종활동
- 정보교환과 유대강화를 위한 활동
- 전문직 향상을 위한 학술활동
- 국제 가톨릭간호기구와의 교류
-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간호활동
-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한 활동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는 1975년 5월 7일 가톨릭대학교 부속 성모병원(당시 명동소재) 소속 간호사 약 100여명이 “성모병원 가톨릭간호사회”를 결성하여 종교활동을 통한 사회봉사사업을 시작한 것이 그 모체라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국제 가톨릭간호협회에서는 수 차례 김수환 추기경께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결성에 대해 필요성을 요청해 왔고 김수환 추기경은 이 뜻을 성모병원 간호과장인 이춘원(놀벨다) 수녀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1979년 2월 5일 성모병원 간호사회가 중심이 되어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창립 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가톨릭간호사들의 소재 파악을 위해 전 국 175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1000여명의 가톨릭간호사들이 재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창립 준비위원회에서는 1979년 5월 18일 살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교육관에서 약 130여명의 간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가톨릭간호사회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이춘원(놀벨다)수녀를 회장을 선출하였으며, 회칙과 사업계획안을 심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조직으로는 전교부, 봉사부, 섭외 홍보부를 두고 부회장 2인, 이사 8인, 감사 2인을 선출하였으며, 김창렬 신부(현 제주교구 주교)를 지도신부로 모시기로 결정함으로써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1981년 8월 4일 CCK에 등록하여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회칙을 인준받음으로써 국제 가톨릭간호사 협회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였고, 이듬해인 1982년 4월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된 제12차 국제 가톨릭간호사협회 총회시에 공식적인 가입이 이루어짐으로써 국제 회원국이 되었다. 1999년은 한국 가톨릭간호협회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로 청년기를 맞게 된다. 창립 20주년을 계

기로 보다 발전되고 성숙된 협회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회원배가 운동, 20주년 기념 전국연합 신앙대회 개최, 2001년 아시아 지역 가톨릭간호사회 총회의 한국 유치를 목표로 재원확보, 각종 홍보물의 제작 등을 준비중에 있다. 이상과 같이 본 협회에서는 보수교육, 각종 선교활동과 피정, 성지순례 등을 통해 회원 개개인의 신앙심을 함양하며 전문직 종교단체로서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이웃과 사회를 위해 참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뿐 아니라 세계 속의 한국 가톨릭간호사협회 위상을 확고히 함으로써 국위를 선양하는 일에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8. 한국 가톨릭 농민회

1. 개황

- 1) 소 재 지: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2동 1-170 ☎ (042)673-4040
- 2) 대표(회장): 이진선(루가)
- 3) 지도신부: 김승오
- 4) 설립연월일:

한국 가톨릭농민회의 모태는 가톨릭노동청년회(JOC)이다.

1964년 10월 가톨릭노동청년회 안에 노동 청년부가 설치된 것이 그 시초가 된다. 농촌청년부가 설치된 배경을 보면, 5·16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독재정치 기반을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농업 등 국내 기초산업의 희생과 저노임을 토대로 한 해외종속적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이농대열이 매년 급증하는 등 농민 지도자의 희생이 강요되었으며, 한국교회 안에서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62-65),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 발족(58), 한국도시산업선교회 발족('58), 원주교구 「사회정의 구현과 부정부패 규탄대회」(71.10월), 한국천주교주교단 공동교서 발표(71.11), 김수환 추기경 성탄메시지(71.12) 등으로 겨레의 삶의 현장에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천주교 도시 노동자들의 모임인 가톨릭노동청년회원들은 자신들의 열한 노동조건과, 왜 농촌을 떠나오지 않으면 안되었는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노동문제는 농민문제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가톨릭노동청년회는 농촌청년부를 설치하고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한국가톨릭농민회는 어떤 위대한 지도자가 시작해서 발전시킨 단체가 아니라 농민도 하느님 모상대로 지음받은 존엄성을 지닌 인간인데 왜 열심히 일한 대가로 고통스런 삶으로 보답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진 농촌출신의 청년들에 의해 태동되었다.

조직 활성화를 위해 각 교구별로 하계 연수회(대전, 광주, 전주, 안동, 마산)를 갖고 가농운동의 전망과 과제, 그리고 우리농 운동의 방향과 생산공동체의 역할등에 대한 토론과 다짐을 이루었다.

우리콩살리기운동본부는 4.25 농협중앙회에서 [우리콩살리기 운동본부 창립 총회 및 두부가공 식품 시식회]를 열어 우리콩에 대한 관심 증대와 대안 운동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였다.

우리농촌살리기운동에서는 해외연수교육으로 “몬드라곤 연수(4.18-30)”와 “일본연수(6.24-30)”를 교구 대표 신부님들과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다. 5.8에는 ‘우리농 생산자 창립 총회’를 열어 생산자 위원회 규약과 사업 계획, 우리농 가격 기준 등에 대한 심의·토론을 이루었다. 또한 7.15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제1회 농민주일 및 우리농 2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어 농민주일 제정의 의미와, 도농 공동체 운동의 지향점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발표와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리밀살리기운동은 본래 1,100만평을 계약재배하여, 34만여 가마의 수확을 예상하였는데, 수확기의 이른 장마로 인해 총 263,642가마(10,546톤)을 수매하였다.

조사홍보사업으로 회원명부발간을 위한 조사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가농소식지가 11월까지 3회 발간되었다.

9. 꾸르실료 한국 협의회

1. 개황

- 1) 주 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97-1 세계성체대회 기념교육관 ☎ (02)337-8588, 9008
- 2) 주 간: 이광호 요셉
- 3) 대표지도신부: 배갑진 베드로 신부
- 4) 책임수도회: 성모영보수녀회
- 5) 설립연월일:

‘꾸르실료(Cursillo)는 스페인어로서, 원형은 Curso인데 영어의 course와 같은 말이다. 여기에 접미사 -illo가 붙어 작은 Curso’ 즉 영어로 표현하면 a little course’ 라는 뜻이 된다. 우리 말로 달리 번역하지 않고 원어를 그대로 써오고 있는 이 ‘꾸르실료는 한마디로 짧은 시간에 갖는 회심 예로의 여행, 즉 회심의 여정을 뜻하는 용어이다. 꾸르실료라고 할 때는 3박 4일만을 의미하며, 꾸르실료 운동이라고 할 때는 꾸르실료 이전, 꾸르실료, 꾸르실료이후를 다 포함하여 일컫는 말이다. 흔히 ‘꾸르실료 운동이라고 줄여서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크리스찬 생활의 꾸르실료 운동’이다. 회심의 여정인 꾸르실료는 하느님을 체험하는 그 열정적인 신앙으로 불타게 이끄는 하느님 은총의 초대이다.

10. 한국 매리지 엔카운터(ME)

1. 개황

- 1)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63 ☎ 511-9901~2, 3471-1615
- 2) 대표부부: 강수길 그레고리오, 오미호 엘리사벳
- 3) 지도신부: 배영무 라우렌시오
- 4) 설립 연월일: 1977. 3. 11.

2. 역사적인 엠이운동의 정착

역사적인 1977년 3월 11일-13일 첫 주말에는 팀사제로 마진학 신부, 김진현+송호전 부부, 박희동+문정자 부부, 홍성훈+이화숙 부부가 봉사에 나섰고, 19쌍의 부부, 김정수 신부(서울), 안병태 신부(서강대), 황산근 신부(인천), 서병섭 신부(인천), 광아가다 수녀, 박실베스타 수녀가 참가하여, 20년 1500여차의 주말을 선도하게 된 첫 주말을 창출했다. 제 1차 주말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은총이 컸기에 이동욱+최진현(원주), 임영일+정근정(인천), 손병두+박경자(서울-전아시아ME대표팀), 김철환+문성애(수원) 부부는 팀봉사와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ME 확장에 현역으로 선두에서 봉사하고 있다.

잊을 수 없는 것은 미국인 팀부부였던 짐+젠앨런 부부는 첫 주말을 진수시킨 혁혁한 공로로 서울대교구장인 김수환 추기경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1977년 3월 초대 한국대표로 김진현+송호전 부부와 마진학 신부를 선임하였다. 그리하여 2차, 3차, 4차 주말과 첫번째 디퍼주말로 봉사자 양성에 나섰다. 초대 대표시절은 산모의 산후 산전의 고통을 무릅쓰고 짧은 기간인 5개월간이었지만, 중요한 사업들을 이루어 내었다.

- ① 2. 3. 4차 주말 시행 ② 주한 미국인 부부와 설요한 신부 파견 홍콩에서 영어 첫주말 시행
- ③ 디퍼 첫 주말 시행 ④ 주한 미국인 부부 광도에서 주말 시행
- ⑤ ME 국제대회 (LA 미국) 한국대표로 참석

11. 한국 지속적인 성체조배 봉사자 협의회

1. 개황

- 1) 소재지: 서울 중구 명동 2가 1 가톨릭회관 604호 ☎ 775-0716, 771-7600(2365)2
- 2) 설립연월일: 1994. 8.27(창립총회) 1994.10월 추계 주교 총회(10일-13일)에서 인준
- 3) 대 표: 허항무(바오로) 회장
- 5) 지도신부: 서울대교구 김기화(포카스 도밍고) 광주대교구 신동술(라이문도)

(8명) 대구대교구 최봉도(프란치스코 하비에르) 대전교구 이범배(바오로)

부산교구 허 성(야고보)

수원교구 한연흠(다니엘)

인천교구 박창목(바르톨로메오)

전주교구 서정현(시몬) 신부

6)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실시 교구(10개 교구) : 전주교구, 마산교구, 대전교구, 원주교구
부산교구, 인천교구, 서울대교구, 수원교구, 광주대교구, 대전교구,

1980년 2월24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교회의 모든 주교들에게 보내신 특별서한 ‘성체의 신비와 흠숭에 관하여’ 에서 “교회와 세계는 성체조배를 할 큰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사랑의 성사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충만한 믿음과, 세상의 큰 오류와 죄악을 기워 갚는 조배와 묵상을 통해 주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데 우리는 열심을 더해야 하겠습니다. 성체조배가 절대로 끊임없이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호소하신 후부터 지속적인 성체조배가 본당 중심의 사도직으로 전파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본당 중심의 지속적인 성체조배가 전세계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1980년 6월 13일 미국 텍사스주 갈베스틴 휴스턴 교구 성녀 히야친다 성당이며, 교육은 루치아 마르띠노 신부(예수 성심·성모성심 수도회 수사 신부)가 하였다.

2. 여명기

1) 한국에 전파됨

메리놀회 백제라르도 신부가 미국에서 행해지는 본당 중심의 지속적인 성체조배를 도입해 와서 소개하였다. 1983년 11월 22일 인천교구장이신 나길모 주교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에서 주교단에게 지속적인 성체조배를 소개하였다. 이후 각 교구 교구장님의 요청으로 본당에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2) 창설기

(1) 한국에서 첫 실시

1984년 5월 13일 인천교구 부평2동 성당(주임 - 강성욱 신부)에서 500명이 입회식을 하였으며 6월 1일 지속적인 성체조배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교육은 메리놀회 백제라르도 신부가 하였으며 당시 명칭은 가르멜산 성모성체회’ 였다.

2) 전국의 성체조배 봉사자들의 모임

1987년 10월 13일 대전교구 교육회관에서 피정점 첫모임을 가졌다. 참가자는 8개교구 16개 본당 53명이 참가하였다.

12. 한국 가톨릭 여성 협의회

1. 개황

- 1) 소 재 자: 서울 중구 명동2가 1번지 ☎ 776-5618, FAX 776-5618
- 2) 창 립 일: 1975.5.29
- 3) 대표자(회장): 김금숙(막달레나)
- 4) 지 도 신 부: 박기주(미카엘)

2. 목적

복음전파와 가정성화에 주력하고, 각 교구 및 세계 가톨릭여성단체와 유기적인 유대를 갖고, 본회와 동일한 목적을 가진 국내 및 국제기구와 유대를 갖는다.

3. 사업 내용

- 1)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 2) 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각 교구 주요사업보고 및 교구 특성에 맞는 좋은 사업을 위하여 협의하고, 타 교구에 활동을 통하여 각 교구 여성활동에 도움이 됨.
- 3) 국제교류
 - 1983년부터 정회원으로 세계 가톨릭여성연합회에 가입
 - 1987년부터 현재까지 세계 가톨릭여성연합회 이사국으로 활동
 - 4년에 1회 아시아 태평양지역 가톨릭 여성연합회 회의 참가
 - 4년에 1회 세계 가톨릭여성연합회 총회 참가

4. 각 교구 가톨릭여성연합회 창립 현황

1963.11.19	서울대교구	1969. 2.28	대전교구	1971. 7. 3	마산교구
1971.12. 5	원주교구	1974. 8.20	부산교구	1975.11. 7	광주대교구
1975.11. 7	대구교구	1980. 3.25	인천교구	1980.12. 8	수원교구
1981. 2.20	제주교구	1989. 3.27	전주교구	1992.11. 1	청주교구
1996.10.20	안동교구				

13. 한국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

1. 개황

- 1) 소재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3가 3-5 가톨릭 센타 401호
- 2) 설립 연월일
 브레시디움 1953년 5월 31일 꾸 리 아 1956년 8월 7일
 꼬미씨움 1956년 12월 6일 세나투스 1958년 7월 13일
- 3) 단 장: 김영대 (루수)
- 4) 지도신부: 박영웅 (가브리엘)

2. 한국 레지오 도입과 발전

1) 도입 과정

한국에 레지오 마리아가 도입된 것은 1953년 5월 31일 당시 광주교구장이신 현 하롤드 대주교의 지도로 목포시 산정동 본당에 「치명자의 모후」 브레시디움과 「평화의 모후」 브레시디움 그리고 경동 본당에 「죄인의 의탁」 브레시디움이 설립되었다. 이어서 광주, 청주, 춘천, 원주, 전주, 서울, 제주 지역의 각 본당에 확산되어 각 교구에 확장되었다. 초창기 각 브레시디움은 아일랜드 더블린의 끈칠리움 직속 브레시디움으로서 끈칠리움의 지시를 직접 받았고, 사업보고를 하였다.

1955년 10월 9일에는 한국 최초의 꾸리아가 창단되었는데 산정동 3개 브레시디움(치명자의 모후 브레시디움, 평화의 모후 브레시디움, 동신자의 모후 브레시디움)과 경동 죄인의 의탁 브레시디움 및 함평 전교의 모후 브레시디움 등 5개의 브레시디움으로 「목포 매괴의 모후」 꾸리아가 탄생되었다. 1956년 8월 7일에는 광주시 북동 본당 산하 8개 브레시디움으로 「중재자이신 마리아 꾸리아」가 설립되었으며 1956년 12월 6일에는 「중재자이신 마리아 꼬미씨움」으로 승격되었다.

1957년 3월 3일 한국 최초의 소년 꾸리아인 「목포 천지의 모후 꾸리아」가 창설되었다.

이어서 1957년 6월 10일에는 「광주 바다의 별 꾸리아」와 1957년 10월 9일 「부산 천신의 모후 소년 꾸리아」가 설립되었다. 레지오 사도직의 소개가 잘 되어감으로 인하여 교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든 본당마다 앞을 다투어 브레시디움 설립이 가속화되었다. 사제와 수도자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며 정성을 다 하여 봉사하고 자신들의 성화에 소홀함이 없이 모범적인 신심생활을 하였다. 특히 광주대교구는 한국 본산지답게 레지오 사도직에 참여도가 높았으며 교본 규칙에 따라 전국을 지도하며 착실히 성장해 나감으로써 좋은 모습을 보여 주었다.

1957년 5월 7일에는 세계 본부인 끈칠리움으로부터 한국 레지오 마리아의 지도적 역할을 광주 중재자이신 마리아 꼬미씨움에 의뢰한다는 승인서를 받게 되었다. 이듬해 1958년 7월 13일 세계 평의회인 끈칠리움에서 한국 중재자이신 마리아 세나투스(국가 평의회)를 승인하였다. 한국에 레지오 마리아가 도입된지 5년만에 전국적인 조직을 완료하여 국가 평의회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14. 레지오 마리아에 서울 무염시태 세나투스

1. 개 황

- 1) 소 재 지: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1 가톨릭 회관 4층 ☎ 02)776-8520, Fax774-1970
- 2) 설립연월일: 1978년 12월 23일
- 3) 대 표 자: 강형일(루도비코) 단장
- 4) 담 당 주교: 정진석(니콜라오) 대주교
- 5) 지 도 신부: 신부

2. 레지오 마리아의 한국 도입

1953년 5월 31일 당시 광주 교구장 서리였던 해롤드 헨리 현 신부(5대 광주 교구장)의 지도로 광주교구 산하 목포 산정동 본당에 “치명자의 모후” 브레시디움과 “평화의모후” 브레시디움이 탄생되면서 전국적으로 급속히 확장되어 서울에는 1955년 8월 19일 후석동(구명수대) 본당에 “평화의 모후” 브레시디움이 첫 번째로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그후 1957년 혜화동 본당에 “상지의 좌” 꾸리아가 설립 되었으며, “상지의 좌” 꾸리아는 1960년 3월 30일 한국 무염시태 꼬미씨움으로 승 격되었으며, 1974년 9월 25일 레지아로 다시 승격되었다.

이와 같이 활발히 레지오가 발전되던 중 한국 레지오 도입 25주년을 기념하여 끈질리움 경축 사절로 내한한 맥그래드 신부가 한국 레지오 마리아의 질적, 양적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 레지오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을 국가 최상급 평의회인 세나투스로 승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끈질리움에 제시하여 1978년 12월 23일 서울 대교구에 정식으로 세나투스가 승격 설립되었다. 그리고 1980년 2월 18일에는 주교단의 공동 집전으로 세나투스 승격 미사를 성대히 거행하고, 단원들은 레지오 마리아의 알찬 활동과 조직 확장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였다.

1999년 9월 30일 현재 서울, 광주 세나투스, 대구 레지아 소속 행동 단원 수는 28만여 명이다.

15. 마리아 사업회 (포콜라레 운동)

1. 개 황

포콜라레 운동은 1943년 이탈리아 트렌토에서 시작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의 파괴와 절망 속에서 당시 23세였던 끼아라 루빅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사랑이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체험을 통해서 하나로 뭉쳐졌으며, 이 경험은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복음에 따라 철저하게 살고자 했다. 약 한 달 후, 500여명에 달하는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태어났다. 주위 사람들은 끼아라를 중심으로 한 이 젊은 여성들의 사랑의 따스함을 보면서 ‘포콜라

레(Focolare)'라고 불렀는데, 이는 이탈리아 말로 '벽난로'를 뜻한다.

2. 일치의 영성

복음의 몇 구절이 그들의 마음을 끌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단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마태 18.20) 복음에 따라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체험했으며, 이 일치로 인해 그들의 차이점이 오히려 서로를 풍요롭게 해주는 선물이 되었다. 성부께 드린 예수님의 기도: “아버지,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21)를 통해 끼아라와 동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이 바로 이 일치를 가져오기 위한 것이었으며, 인간들 역시 일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함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여 발전한 것이 일치의 영성으로 하느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었다.

이 운동은 1962년 교황 요한 23세에 의하여 인준을 받았다.

3. 구성

포콜라레 운동은 범세계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현재 186개국에 450만 명의 회원들과 협조자들이 있으며 연령, 인종, 직업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운동의 구성원이 되고 있다. 이 운동에 속하는 방법은 여러 부문 중 하나에 전적으로 투신하는 형태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에 동참하는 협조자의 형태 등 다양하다. 운동의 주축이 되는 <포콜라리노>는 평신도들로서 남녀 각기 공동체를 이루고 하느님께 전적으로 봉헌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 어른들로서 각자가 속한 환경 속에 복음적 사랑을 실천하는 <술선자>가 있다. <젠(Gen)>은 새 세대라는 뜻으로 복음적 생활로 새롭게 변화된 젊은 세대를 말하며 연령에 따라 2젠, 3젠, 4젠, 5젠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사제와 수도자들도 이 영성을 접하며 각자의 성소를 더욱 깊이 생활하고 있다.

좀 더 폭넓은 차원의 대중운동들을 통해 사회를 복음화하여 일치를 가져가고자 하는 것인데, 이들은 새 인류 운동, 새 가정 운동, 일치된 세계를 위한 젊은이 운동, 일치를 위한 청소년 운동, 새 본당 운동 등이다. 새 인류 운동은 1988년 국제연합의 비정부기구로서 등록되었다.

4. 새 사회의 모형, 소도시

1949년부터 늘어나는 회원들을 위하여 이탈리아 북부 돌로미티 산에서 매년 여름 정기적인 휴가 모임을 가졌는데, 이 모임이 바로 이제는 널리 알려진 <마리아폴리>이다. 서로간의 사랑을 기본 법률로 하는 일시적인 소도시로서, 보편적인 인류애를 증명해 보이는 우리 사회의 작은 모형이다.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180개의 마리아폴리가 열리고 있으며,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한다. 이러한 일시적인 도시를 모델로 하여, 후에 영속하는 <소도시>들이 태어났다. 1964년 이탈리아 플로렌스 근처에 세워진 로피아노를 시작으로, 현재 독일, 스위스, 벨기에, 스페인, 슬로베니아, 카메룬, 케냐, 필리핀,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 멕시코, 레바논 등지에 20여 개의 소도시가 건설되었다. 이들 소도시들은 포콜라레 영성의 본부로서 일치의 삶을 훈련하는 <교육의 장>

이 되고 있다. 사람들은 이 곳에서 의 경험을 각자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가져가 일치된 세계를 건설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5. 삶에 기초를 둔 교회일치운동

일치의 영성은 1958년부터 여러 다른 그리스도교 교회들과 접촉을 맺으면서 곳곳에 사랑의 분위기를 날아주었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함께 모인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차츰 서로 간의 삶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정교회에서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에 이르기까지 약 300개 교회의 4만 6천명 이상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이 영성을 살고 있다. 끼아라 루빅은 수차에 걸쳐 콘스탄티노플 동방 정교회의 역대 총대주교, 영국 성공회의 역대 수석 대주교, 루터교회의 뮌헨 교구장 등 교회 인사들과 대담을 가졌다.

6. 타종교와의 대화

끼아라 루빅은 종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1977년 <템플턴상>을 받았다. 여러 종교의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수상 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랑을 모든 것의 핵심으로 둔 끼아라 루빅은 여러 종교에 속한 많은 사람들의 영신적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일치의 건설을 위한 그녀의 활동은 오늘날의 교회와 종교간의 관계 개선에 가장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 1981년 끼아라 루빅은 일본의 불교 평신도 운동인 리쇼코세이카이 창설자 니코 니와노씨의 초청을 받아 도쿄에서 1만 명의 불교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였으며, 1995년부터는 태국의 스님들과 개인적인 접촉을 갖고 있고, 97년에 아잔 통 대사의 초청을 받아 태국을 방문하여 사찰분부와 승가대학에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포콜라레 운동은 WCRP(세계 중 교인 평화회의)의 영구 회원이며, 끼아라 루빅은 이 기구의 명예회장이다. 전 세계의 연대와 평화 증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모든 믿는 이들간에 하느님 안에서의 공동협력이다.

7. 비신자들과의 대화

종교가 없이 다른 사상을 지닌 사람들과도 대화를 하고 있다. 서로의 차이점을 넘어서 일치된 세계를 목표로 인류의 요구에 응하고자 한다. 평화와 인권을 위해, 긴장이 고조된 곳에는 형제애를 이룩하기 위해, 사랑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8. 일치된 세계

포콜라레가 지향하고 있는 ‘모든 이가 하나되게 하소서’라는 목표는 5개 대륙에서 일치된 세계를 위하여 일하며 살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을 끌어당겼다.

1990년 3월 31일에 있었던 1만 8천명의 젊은이들과의 모임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일치된 세계를 “우리들의 미래의 가장 큰 도전이자 오늘날의 인류의 가장 큰 소망”이라고 밝혔다.

마리아 사업회 (포콜라레 운동)

남자: 한국 본부: 121-210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1-4 전화 02-332-1010
서울 본부: 137-063 서울 서초구 방배3동 541-42 전화 02-587-1020
대구 본부: 705-039 대구 남구 대명9동 485-21 전화 053-621-4822
여자: 한국 본부 100-452 서울 중구 신당2동 414-3 전화 02-2232-2460
서울 본부 137-069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94-12(7/2) 전화 02-537-2942
대구 본부 705-031 대구 남구 대명1동 801-2 전화 053-651-2739
 대가 그린하이츠 102호
마리아폴리 센터 437-070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95 전화 0343-456-7423-4

16. 한국 가톨릭 노동청년회

설립 일: 1958. 3

주 소: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148-53 ☎ 02)815-2483, FAX817-9648

지도신부: 강신모 프란치스코 신부

회 장: 최연정 체칠리아

17. 한국 가톨릭 병원협회

설립 일: 1967. 9.22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구내☎ 02)590-1334

회 장: 정덕필 니콜라오

18. 한국 가톨릭 미술가협회

설립일: 1970. 5. 1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566-4 ☎ 02)324-5286

지도신부: 장익 요한 주교

회 장: 최종태 요셉

19. 한국 가톨릭 실업인회

설립일: 1979.7.25

주 소: 서울 중구 명동 2가 1 가톨릭회관 7층 ☎ 02)755-7060, 755-7076

지도신부: 경갑실 요한 신부

회 장: 여규태 요셉

20. 한국 가톨릭 아동 복지 협의회

설립일: 1980. 10.30

주 소: 강원도 원주시 계운동 387-36 14/2 ☎ 0371)745-1489 FAX766-4876

지도신부: 최용병 베네딕토 신부

회 장: 전덕환 미카엘 수사

21. 한국 가톨릭 언론인회

설립일: 1968. 6. 11

주 소: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01-105 ☎781-2120

지도신부: 김준철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
회 장: 김성호 빈첸시오

22. 한국 가톨릭 학교장회

설 립 일: 1968. 6. 7
주 소: 충남 논산시 등화동 5 논산 대건중고 ☎0461)735-1960, FAX 735-1962
회 장: 강석준 미카엘 신부

23. MBW 추진회

설 립 일: 1952. 2. 10
한국진출일: 1967.
주 소: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39-40 ☎ 0652)277-1713 FAX 253-1714
회 장: 조정호 요셉 신부

24. 한국 행복한 가정운동

설 립 일: 1975.4.1
주 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2 성모병원내
☎ 02)3779-1216, 784-6535 F.784-6535
지도신부: 노연호 마티아 신부
회 장: 조혜옥 아나다시아

◇ 좌석 배치도

서부지구 제 3·4지구	제 9지구	북부지구 제 7지구	제 10·11지구	제 14·15지구
제 1·2지구	동부지구 제 5·6지구		제 8지구	제 12·13지구
레지오마리아	군중·안동·대전 춘천·원주·청주	마산·전주·대구 제주·부산·광주	수원·인천	꾸르실료
레지오마리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10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p>무대 제대</p> </div>			성령쇄신 봉사회
레지오마리아				ME 포콜라레
레지오마리아 MBW 봉사자 및 안내자석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성가대 전례단

'99 도·농 한마당 잔치



일시 : 1999년 10월 24일(일)

오전 9시~오후 7시

장소 : 서초구청 광장(지하철 3호선 양재역 하차)

추수감사미사 : 오전 10시

전국 각 교구 우리농특산물 직송한마당

광주 대전 인천 부산 청주 춘천 원주 전주 안동 수원
마산교구 우리농민회가 엄선한 지역 농특산물 총집합 - 햅쌀
햇과일 잡곡 배추 무 등 채소 해산물 우육 및 가공식품 다수

평화방송 「한낮의 가요선물」 공개방송

최백호, 임주리, 홍 민, 배일호, 차니미니, 전미경, 최유나,
권진원, 장 민, 최창민, 우리사랑나누기 ♡ 진행 : 송도순



기쁨과 희망 생활성가공연

풍물경연대회

민속놀이

환경상품 특별매장

환경세제, 비누, 휴지 외

재활용의류 판매마당

우리음식잔치

국밥, 잔치국수, 빈대떡, 막걸리,
각종 떡, 족발, 떡볶이, 순대,
호박죽 외

행사 기념품 코너

후 원 : 가톨릭명동신용협동조합 가톨릭실업인회 가톨릭여성연합회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서초구청 가톨릭신문 PBC 평화방송 평화신문

주 관 : 서울평신도사도직협의회 한국가톨릭농민회 우리농촌살리기운동전국본부

우리농촌살리기운동 서울교구본부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

행사문의 (02) 777-2013

'99 도-농 한마당 잔치

일 시 : 1999년 10월 24일 09~19시

장 소 : 서초구청 광장

2000년 대희년을 뜻깊게 맞기 위하여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협의회가 주최하는 '99 도-농한마당잔치는 도시와 농촌의 사랑과 섬김과 나눔의 장으로서 추수시기를 맞아 각 교구의 특산품과 우수농산물을 소개, 판매하며 농촌교구 생산자와 도시 소비자가 함께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리입니다.

우리농 판매마당 품목들

“농촌사랑은 생명사랑입니다.”

■ 주곡 및 잡곡류

저농약백미 무농약백미 유기농쌀 일반미 현미 찰쌀 찰옥수수쌀 찰현미 흑미 보리 왕대 흑대 서리태 적두 거두 기과녹두 탄녹두 깻녹두 백대 수수 율무 노랑차조 기장 참깨 검정깨 들깨 선비태 약공 유대 엇길근 땅콩 등

■ 채소·과일류

배추 무우 감자 고구마 양파 애호박 늙은호박 부추 통나물 파 생강 건고추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토란대 더덕 영지버섯 감 굴 배 사과 대추 밤 잣 등

■ 농산물 가공품 및 장 절임류

고추장 된장 청국장 간장 참기름 들기름 고추씨 기름 현미유 현미쌀눈 매실차 오미자차 작설 현미녹차 두충차 결명차 등굴레차 감잎차 옥수수차 보리차 매실효소 아체효소 딸기쥬스 포도쥬스 살구쥬스 포도주 포도즙 호박즙 배즙 사과즙 인삼수 홍삼즙 물엿 엿 현미초 포도식초 감식초 사과식초 당면 전분 미숫가루 아카시아꿀 집화꿀 싸리꿀 토종꿀 대추꿀 구죽염 일죽염 삼죽염 송선액 마늘 쫄장아찌 무우장아찌 오이장아찌 더덕장아찌 깻잎장아찌 등

■ 축산물

소고기 등심 안심 양지 장조림 갈비 사골 우족 잡뼈 꼬리곰자 유정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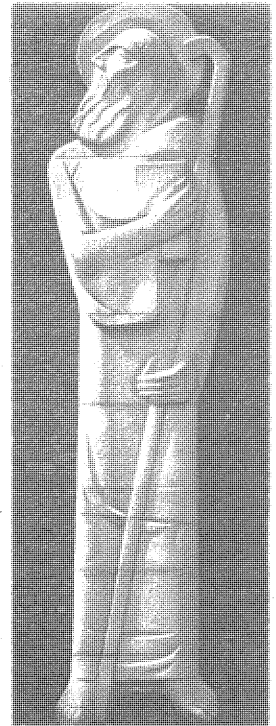
■ 수산물 및 가공품

영랑굴비 자연산다시마 다시마 참김 돌김 파래김 김밥김 새래김 건미역 돌미역 다시멸치 볶음멸치 지리멸치 건오징어 황태 북어채 대구채 찜용북어 까나리젓 새우육젓 새우주젓 면치역젓 갈치숙젓 토하젓 명란젓 오징어젓 장란젓 청어알젓 멧게젓 조개젓 어리굴젓 야가미젓 꿀뚜기젓 천연조미료 볶은소금 등

■ 환경상품 및 우리밀제품

빨래비누 가루비누 주방세제 재생휴지 샘이랑 천연샘 죽염비누 오보크린 면행주 우리밀라면 우리밀짜장면 우리밀빵 우리백밀가루 우리통밀가루 우리밀국수 우리밀고추장 우리밀막걸리 우리밀 만두 우리밀과자등

※ 일부 품목은 조기 절품될 수도 있습니다. 차량 입장시 안내를 받으십시오.
※ 단체구매시 사전에 우리농 서울교구본부 물류센터로 연락바랍니다.(☎ 3446-8141~4 팩스 776-7879)



천주교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부회장 옥 종 권(요아킴)

변호사 김 기 수(안드레아)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부회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51-34 대호B/D 신관 301호

☎ (02)581-9500 · 9400

FAX (02)581-9600

사계절 종합휴양지 - 베어스타운

중양두레문화연수원

내리근 곳의 평신도대회를 축하드립니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문화의 멋진 조화를 이룬 베어스타운 리조트 사계절 종합연수시설을 갖춘 베어스타운 중양두레문화연수원에서 잊지 못할 추억과 안식의 공간을 마련합니다.

※교우여러분의 미사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레문화연수원 시설안내

연수시설	숙박시설	타워, 빌라콘도, 유스호텔 등 600여실의 편리한 객실완비
교육시설	교역시설	600석 규모의 타워공연장, 300석 규모의 대강당, 100석 규모의 스카이 대강당, 50~100석 세미나실 및 분임토의실
식당	식당	대식당, 단체식당, 레스토랑, 스낵하우스 등 1,000석 규모의 식당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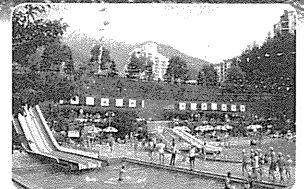
부대시설	타워콘도내	타워대식당(300석), 실내수영장, 사우나, 타워커피숍, 스포츠용품점, 전자오락실
실외시설	골프장, 야외수영장, 테니스장, 서바이벌게임장, 대운동장, 캠프장	
기타	등산로, 약수터, 관광리프트	

예정시설	골프연습장 (공사중)	40타석, 비거리 240 yard, 락카툰, 샤워실, 한식당, 휴게실
	베어스랜드 (공사중)	바이킹, 범퍼카등 놀이기구 13종, 야외공연장, 카니발스트리트
	컨벤션센터	1,000석 규모의 국제회의장, 세미나실, 실내공연장, 사우나, 스포츠오락시설, 한·양식당 - (2,000년 건립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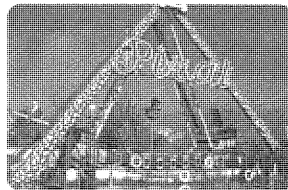
연수문의 서울 02-594-8188 리조트 0357-540-5136



▲ 골프장



▲ 야외수영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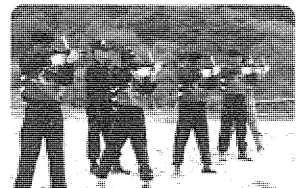
▲ 베어스랜드



▲ 단체식당



▲ 애워연수



▲ 서바이벌게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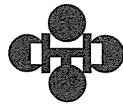
▲ 스키장



베어스타운리조트
두레문화연수원

리조트 :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소학리 295번지 TEL:(대) 0357-532-2534 / FAX: 0357-533-84
 서울사무소 : 서초구 서초동 1703-10호 베어스타운BD 4F TEL:(대) 02-594-8188 / FAX: 02-594-9000
 대표이사 : 석두성(안드레아) 고 문 : 김두봉(스테파노)

경 대회년맞이 평신도대회 축



大雄建設株式會社

본사: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회현2리 379-3

지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1가 46-3

☎ (02)763-4922~4

FAX (02)763-4888

서울대학교 평신도사도직협의회 부회장 · 한국 가톨릭실업인회 회장

여 규 태(요셉)

뒤적이면 뒤쳐진다!



아직도 시대에 뒤쳐진 사전을 뒤적이고 계십니까? 영어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샤프 전자사전- 리얼딕!

이제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종이사전은 버리고 리얼딕과 만나십시오.
시사엘리트 영한·한영사전을 통째로 수록하고도,
무게는 영한·한영·옥편을 합한 무게의 1/16에 불과!
단어 검색속도를 종이사전보다 25% 단축시켜 학습속도를 향상시키고,
단어 검색중 모르는 단어를 한번의 클릭으로 찾는 jump 기능 등
다양한 기능으로 꼭 찬 리얼딕- 영어실력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켜 드립니다.

- 점프 기능** 검색한 단어의 내용 중 모르는 단어는 선택해서 바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와일드카드 검색 기능** 스펠링을 정확히 몰라도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예 : scho? → school)
- 블랭크 워드 검색 기능** 스펠링과 문자 수가 확실하지 않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예 : dict? → dictionary)
- 백감피 기능** 최근 검색한 단어를 40~100개까지 자동저장, 손쉽게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 스펠링체크 기능** 스펠링이 애매한 단어는 유사한 모든 단어들을 검색해줍니다.
- 리스트 기능** 입력한 단어부터 사전 순서대로 단어를 리스트 검색해 줍니다.

● 제품구입 문의는 가까운 대리점이나 백화점으로 해주십시오



시사엘리트 영한사전/한영사전 통째 수록

- 영한사전 : 170,698단어(시사엘리트 100% 수록)
- 한영사전 : 74,815단어(시사엘리트 100% 수록)
- 한자목록 : 상용한자 4,888자
- TOEIC : 단어(1,497)와 관용어구(1,348)로 구성
- 한·영·일·회화 : 각 1,951문장 수록(한글 발음표기)
- 계산기 : 가감승제, 메모리, 퍼센트 계산가능
- 무게 : 173.5g · 크기 : 가로 14×세로 7.9×두께 2.1(Cm)



동아프리임 영한사전/한영사전 통째 수록

- 영한사전 : 188,651단어(동아프리임 100% 수록)
- 한영사전 : 141,533단어(동아프리임 100% 수록)
- TOEIC : 수록어휘 2,203 단어
- 계산기 : 가감승제, 메모리, 퍼센트 계산가능
- 무게 : 180g · 크기 : 가로 13.7×세로 8.6×두께 1.5(Cm)

쉽고 빠른 차세대 전자사전-

리얼딕

대리점

■ 서울 : (주)상신이앤비 752-6678, 777-4741 사포 OA 777-9015, 319-9015 상신몰지점 718-3190-1 남대문로점 778-0918 상신몰지점 757-7011-2 테크노마트(상선점) 3424-5066 (주)상선정보통신 3475-0897 (주)서프비전 719-8144(대) 황기서포 2274-2480(대) 테크노마트(사프비전) 3424-4850-2 사포타운(주)강남 534-9812-4 수성점(사포) 3465-2881-4 사포AV산업(주)(사포) 703-8818

샤프전자(주) <http://www.sharp-kore.com>
제품문의 : (02)3660-2000



인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21세기 제약선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원료약품 개발에서 완제품까지

1988년 중앙연구소 설립 이래 원료합성 연구개발에 힘써온 경동제약은 1997년 30여억 원을 투자한 합성연구동을 신축하고 양산체제를 완비하여 고품질의 원료약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원료약품 국산화 성공

경동제약은 대부분 국내 제약회사가 원료약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내 최초로 **염산티로 프라미드, 아세클로페낙, 실로스타졸, 염산디페메린** 합성개발에 잇달아 성공함으로써 원료국산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경동제약주식회사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9-11
TEL(02)576-6121-5 FAX(02)577-5195

• 공 장 : 경기도 화성군 왕감면 대왕리 535-3
TEL(0339)352-0990, 8564 FAX(0339)52-0991